

한양대학교의료원 매거진

Vol.148 2017 November / December

Special theme

예고 없는 이별과의 전쟁, 급성 뇌질환

사랑을 실천하는 병원



겨울에도
따뜻함은 한뼘씩
자랍니다



한양대학교의료원
HANYANG UNIVERSITY MEDICAL CENTER

추운 겨울에도 따뜻함을 전하는 한양대학교의료원이 되겠습니다

김경현

한양대학교 의무부총장 겸 의료원장 김 경 현



어느새 겨울의 시작을 알리는 절기, 입동이 가까워졌습니다. 짧아지는 오후 별, 길고 깊어지는 저녁의 농도, 선명한 입김이 한동안은 익숙해질 테지요. 하지만 결코 익숙해지지 않는 신체의 아픔은 매서운 추위에 더욱 두드러지는 법입니다. 이럴 때 일수록 포근하게 온도를 높여 몸을 보호하고, 사랑하는 사람들과 따뜻함을 나누는 계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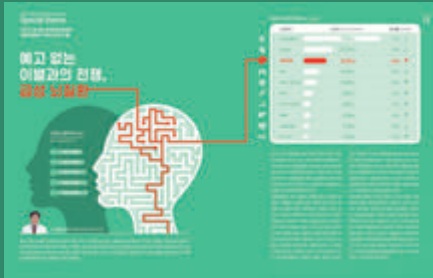
겨울이면 혈액순환이 원활하지 않아 뇌졸중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번 스페셜 테마는 ‘급성 뇌질환’을 주제로 뇌졸중, 뇌출혈, 어지럼증에 이르기까지 증상과 치료, 관리법에 대해 준비했습니다. 2016년 10대 사망원인 통계에서 3위를 차지한 뇌혈관질환은 충분한 운동과 관리를 통해 예방하고 대비할 수 있습니다. <사랑을 실천하는 병원>이 급성 뇌질환 예방을 위한 실천의 밑거름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한양토픽에서는 한양대학교병원의 감염관리 시스템을 소개합니다. 병문안객 통제 시스템으로 감염의 확산을 방지하고, 환자와 방문객 모두의 안전을 위한 엄격한 감염관리 현장을 만날 수 있습니다. 안정된 공간에서 효율적으로 이뤄지는 치료 환경을 지켜봐 주시길 바랍니다.

병원으로 오시는 길이 조금은 춥게 느껴질 수 있는 11월입니다. 하지만 최고의 의료진들이 온기 가득한 두 손을 뻗어 여러분을 따뜻하게 맞이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긴 겨울의 시작입니다. 이해하기 쉽고 알찬 내용을 담은 한양대학교의료원 매거진을 보며 더욱 건강한 겨울 보내시길 바랍니다.

Vol.148 2017 November / December

24시간 불 밝힌 권역응급의료센터
중증응급질환 치료에 강하다! ❶

예고 없는 이별과의 전쟁, 급성 뇌질환



뇌혈관질환은 크게 뇌혈관이 압력을 받아 손상되면서 발생하는 ‘뇌출혈’과 뇌혈관 내부의 통로가 좁아지거나 통로를 막는 혈전에 의한 ‘뇌경색’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빠른 판단과 빠른 처치에 의해 환자의 예후가 달라지기 때문에 골든타임을 확보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한양대학교병원은 권역응급의료센터를 통해 적절한 치료를 적절한 시기 내에 받을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습니다.

Contents

02	즐거운 편지	추운 겨울에도 따뜻함을 전하는 한양대학교의료원이 되겠습니다
04	안녕하세요, 선생님	이봉근 한양대학교병원 정형외과 교수
08	Love, Life	건강한 사랑이 꽃피는 공간

14	Special theme ❶	노년의 불청객 뇌졸중, 증상부터 예방법까지
16	Special theme ❷	일본일초가 관건, 뇌출혈의 수술적 치료
18	Special theme ❸	중추성일파 말초성일파, 어지럼증 진단의 첫걸음

20	Hanyang Topic	한양대학교병원 감염관리 시스템
24	미디어 속 건강주치의	배우 신동욱과 복합부위통증증후군
26	베스트 파트너	한양대학교병원 협력병원 린여성병원
28	Dr. Opera	주세페 베르디 오페라 <루이카 밀러>
30	Dr. Movie	전형성을 탈피하라, 영화 속 여성 캐릭터
32	예술과 의술의 만남	에두아르 마네와 매독
34	고마운 당신에게	최정혜 혈액종양내과 교수님께 보내는 편지
36	오늘의 건강강좌	대장암 예방을 위한 ‘1530 캠페인’을 기억하세요!
37	Hanyang News	‘제1회 HY인당 재생의학 즐기세포 국제심포지엄’ 개최 외
40	언론 속 한양인	
42	발전기금	
46	한양캘린더	
47	외래 진료 시간표	



발행처 한양대학교의료원 대외협력실 **발행일** 2017년 11월 1일 통권 148호
발행인 김경현 **주소** 04763 서울시 성동구 왕십리로 222-1 **대표전화** 02-2290-8114
Homepage www.hyumc.com **기획** 대외홍보팀 02-2290-9532~6
편집디자인 큐라인 02-2279-2209
<사랑을 실천하는 병원>은 한양대학교의료원에서 펴내는 격월간 매거진입니다.
<사랑을 실천하는 병원>은 한양대학교의료원 홈페이지와 블로그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우편물 수령 주소가 변경되신 분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한양대학교의료원
의료진의 喜怒哀樂.
의사로 살아가는 진솔한
이야기를 들어봅니다.



아픈 어깨를 어루만지는 따스한 손길

이봉근

한양대학교병원 정형외과 교수

‘기초가 튼튼해야 한다’는 명제는 건강에도 고스란히 적용된다. 인체의 형태를 이루는 가장 기본적인 요소인 골관절에 이상이 생기면 일상생활에 상당한 불편을 겪을 수밖에 없다. 생명을 위협하지는 않지만, 삶의 질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는 골관절질환. 이봉근 교수는 뼈격대는 환자들의 일상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치료와 더 나은 치료 방안을 고안하는 노력을 병행하고 있다. 글. 정라희 사진. 김재이



미소가 친근한 어깨 명의

이봉근 교수는 이른바 ‘어깨 전문가’다. 정형외과의 수많은 세부 분야 중에서도 어깨뼈와 위팔뼈 사이의 관절을 지칭하는 견관절(어깨관절)이 전문 분야다. 특히 그는 어깨의 힘줄에 해당하는 회전근개질환을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다. 일종의 내시경인 관절경을 통해 파열된 부분을 봉합하는 것은 물론 인공관절 수술도 병행한다.

인체의 일부인 어깨 하나에도 시행할 수 있는 수술의 종류는 다양하다. 그는 대중이 익히 아는 대표적인 어깨질환인 오십견이나 류마티스관절염도 담당하고 있다. 수부를 전공했던 그가 견관절로 전문 분야를 전환한 것은 은사님의 권유 때문이었다.

“정형외과에서 어깨 수술은 비교적 늦게 발달한 영역입니다. 불과 10년 전만 해도 대학병원에 어깨 전공자가 없는 경우도 있었어요. 그래서 은사님의 권유로 어깨를 새롭게 공부하기 시작했죠.”

지금이야 어깨 수술이 정착한 것은 물론 점차 발전하는 추세에 있지만, 당시만 해도 회전근개 파열을 치료하는 역행성 어깨 인공관절 치환술을 비롯한 다수 어깨 수술이 도입 단계에 있었다. 이 때문에 그가 느끼는 긴장감도 남달랐다. 요즘은 많은 의사가 비슷한 수술을 시행하고 있지만, 무슨 일이든 ‘처음’이란 어렵게 여겨지게 마련. 두터운 책임감 위에 차근차근 실력을 쌓아갔고, 2010년 한양대학교병원 정형외과 최초의 어깨 전문 임상교수로 부임했다.

국내외 각처에서 의료 봉사를 했던 경험은 어떠한 환경에서도 환자를 돌보는 내공을 키워주었다. 그런 그가 생각하는 정형외과 의사의 자질은 환자를 향한 끝없는 이해와 공감이다.

한양대학교류마티스병원 골관절외과장이기도 한 그는 월간 <헬스조선>의 대학병원이 추천한 ‘설명 잘하는 의사’에도 이름을 올렸다. 하루에 수시로 회진을 돌며 환자와 소통하는 것은 물론 외래 진료를 할 때도 환자들의 궁금증을 충분히 풀어주려 노력한다. 그래서일까. 병원을 오가며 마주치는 환자들이 그에게 유난히 반가움을 드러냈다.

더 나은 진료를 위한 꾸준한 연구

어깨를 제대로 들지도 못하던 환자들이 무사히 치료를 마치고 정상적인 생활을 하는 것을 볼 때면 가장 큰 보람을 느낀다는 그. 스포츠가 보편화하면서 정형외과 치료를 필요로 하는 환자들도 갈수록 늘어나는 추세다.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발생 빈도가 찾아지는 퇴행성질환도 무시할 수 없다. 기계가 오래될수록 닳는 것처럼 몸도 세월의 무게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까닭이다. “많은 분이 생각하기에 ‘정형외과에는 운동하다가 다쳐서 온 젊

은 환자들이 많겠다’ 싶겠지만 실제로는 퇴행성질환을 겪는 어르신 환자들이 더 많습니다. 고령화가 빠르게 진전되면서 퇴행성질환 대비가 더욱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는 임상과 별개로 연구개발에도 정성을 기울이고 있다. 최근에는 힘줄을 꿰매는 데 사용하는 수술 기구를 국산화하는 연구를 수행 중이다. 우리나라를 둘러싼 의료 환경이 급변하면서 국산 의료 기구 수요는 갈수록 급증할 것으로 보인다. 제대로 된 국산 의료 기구 개발이 시급한 이유다. 지난해에는 미국으로 연수를 다녀왔다. 독특하게도 그는 의과대학이 아닌 공과대학에서 1년을 보냈다.

“한국의 임상의학은 세계적인 수준에 올라 있습니다. 이제는 기초의학도 발달해야죠. 미국에서 인공관절을 디자인하는 공학자와 함께 관절의 생역학을 연구했습니다. 관절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질환이 있을 때는 어떻게 달라지는지 등 연구에 관한 방법론을 집중적으로 익혔죠. 제가 환자를 진료하면서 느꼈던 점 위에 적용 가능한 테크닉을 배웠다고 생각합니다.”

“인공관절 역시 대다수가 외국산”이라고 말하는 그는 “최근에는 국산도 조금씩 나오고 있다”고 전한다. 논문이 점차 쌓이다 보면 지식이 형성되기 마련. 그는 지식의 축적이 새로운 인공관절 개발의 밑거름이 되리라고 생각하고 있다. 지금은 지식을 하나씩 더해가는 과정이다.

봉사와 도전의 여정

선비 같은 인상을 지닌 그에게도 독특한 이력이 있다. 여러 생활·의학 프로그램에서 자문의로 출연했던 그는 EBS <세계테마기행>에 큐레이터로 참여해 직접 캄보디아로 날아가 현지의 문화와 생활을 생생하게 경험했다. 오지에서의 고생을 마다하지 않는 모습이 시청자들에게도 신선하게 다가갔던 것일까. 이봉근 교수가 출연한 ‘자연 그리고 인간의 땅, 캄보디아’ 편은 그 해 프로그램 자체 최고 시청률을 기록했다. 덕분에 그는 2014년 EBS 연말 시상식에서 공로상을 받기도 했다.

그에게 캄보디아행 권유가 들어온 데에는 캄보디아와의 남다른 인연이 크게 작용했다. 2014년 7월, 한양대학교의료원 의료봉사팀을 이끌고 본교 동문사회봉사단 ‘함께한대’와 함께 캄보디아 시아누크빌로 진료 봉사를 다녀왔던 것. ‘한국에서 진료팀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 현장에는 치료를 받으러 온 환자들이 밀물처럼 들어왔다. 열심히 진료에 나섰으나, 아무래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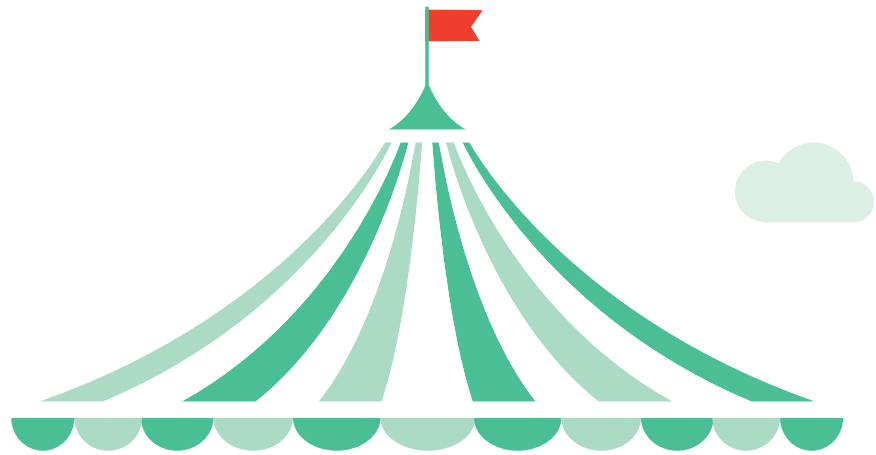
모든 것이 갖추어진 병원과는 달리 아쉬운 점도 적지 않았다. 생애 첫 해외의료봉사. 하지만 그는 함께 봉사활동을 떠난 동료들과 머리를 맞대고 환자를 도울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을 찾고 또 찾았다.

“개방성 골절을 앓는 한 환자의 경우, 몇 년째 치료를 받지 못하고 다리뼈가 드러난 채로 지내고 있었어요. 한국으로 데리고 오려니 장기간의 치료가 필요해 행정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었고요. 그래서 의료진이 모금을 시작했어요. 현지인들도 십시일반 참여했고, 부족한 비용은 한양대학교병원에서 지원했죠. 덕분에 그 환자는 캄보디아 대도시에 있는 병원에서 수술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한양대학교 의과대학 재학 6년간 주말도 방학도 반납하고 국내 각처에서 의료 봉사를 했던 경험은 어떠한 환경에서도 환자를 돌볼 수 있는 내공을 키워주었다. 그런 그가 생각하는 정형외과 의사의 자질은 환자를 향한 끝없는 이해와 공감이다.

이는 ‘환자 중심 치료’를 지향하는 한양대학교병원 정형외과의 정서와도 맞닿아 있다. 훗날, ‘가족을 믿고 맡길 수 있는 의사’로 기억되고 싶다는 이봉근 교수. 이를 위해서는 모두가 인정하는 실력뿐만 아니라 환자들의 지친 어깨까지 보듬을 수 있는 따뜻한 마음도 있어야 할 터. 그렇게 그는 자신의 마음속에 타협하지 않는 기준을 세워두고 매일 성장하기를 포기하지 않는다. 앞으로 이해와 공감을 배경으로 많은 환자의 어깨를 보듬는 명의로서 우리 곁에 든든히 자리하길 바라본다.🙏

한양대학교의료원 안팎에서
펼쳐지는 아름다운
나눔과 사회공헌 활동을
소개합니다.



건강한 사랑이 꽃피는 공간

한양대학교구리병원 2017 구리코스모스축제 '건강축제한마당'

구리시 한강공원에 따사로운 가을 햇살이 비추기 시작하며 '2017 구리코스모스 축제'의 막이 올랐다. 코스모스가 흐드러진 구리시 한강공원 한쪽, 시민들을 위한 무료 진료소 개장을 앞둔 한양대학교구리병원 임직원들로 활기를 띠었다. 청량한 가을의 절정을 담은 이곳에서 한양대학교구리병원은 6년째 변함없는 사랑을 실천하고 있다. 글. 황원희 사진. 이승현



오늘 건강축제한마당을 찾는
시민들에게 올바른 건강 상식을
알리고, 어린이들에게는 의료인의
꿈을 심어주는 즐거운 축제의
장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건강한 삶을 전파하다

구리시 한강공원은 9월 22일부터 24일까지 진행된 2017 구리코스모스축제로 가을빛이 가득했다. 청명한 하늘과 바람에 흩날리는 코스모스의 조화는 나들이객에게 더할 나위 없는 청량함을 전달했다. 구리코스모스축제 기간 중 9월 23일 하루 동안 진행되는 '건강축제한마당'은 한양대학교구리병원이 6년째 사랑을 실천하는 공간으로 올해는 총 12개의 체험 부스가 설치되었다. 행사는 김제민 한양대학교구리병원장의 인사말로 시작되었다. “처음 류마티스내과 단 하나의 부스에서 시작한 건강축제한마당이 6년이 지난 지금은 십여 개의 진료과가 참여하는 공간으로 성장했습니다. 오늘 건강축제한마당을 찾는 시민들에게 올바른 건강 상식을 알리고, 어린이들에게는 의료인의 꿈을 심어주는 즐거운 축제의 장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 끝까지 수고해 주시고, 임직원 여러분의 수고에 미리 감사의 말을 전합니다.” 하루 동안 시민들에게 건강한 삶을 전파할 것을 약속하는 뜻에서 모두 한마음 한뜻으로 박수를 보냈다. 건강축제한마당이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적극적인 한걸음이 되길 바라며, 진심을 담은 의료 봉사를 다짐하는 파이팅을 외치며 각자 담당 부스로 흩어졌다.

남녀노소 모두가 공감하는 건강 콘텐츠

건강축제한마당 행사장 중앙무대에서 한양대학교구리병원 임직원들로 구성된 '한양밴드(HY Band)'의 공연이 시작되자 사람들의 시선이 한데 모였다. 흥겨운 음악은 축제의 활기찬 분위기를 담아내기에 안성맞춤이었다. 덕분에 시민들의 발걸음도 무료 진료소로 이어졌다. 올해 무료 진료소의 테마는 '오래오래 건강하게'와 '우리 아이 튼튼하게' 두 가지이며, 세부적으로는 총 12개의 콘텐츠로 구성되었다. 체험 부스 중 가장 먼저 눈길을 끈 것은 캐릭터 의상을 입은 간호국 간호사들이었다. 아이들이 좋아하는 캐릭터로 무장한 이들은 '깨끗한 손! 건강한 몸!'을 주제로 올바른 손 씻기 방법을 알려주었다. 또한, '알레르기 바로 알기' 부스에서는 키, 몸무게를 측정해 성장을 예측했고, 6세 이상 어린이를 대상으로 알레르기 간이 검사를 진행했다. 바로 옆 부스

에서 진행되는 간호사·의사 체험과 약제팀의 약사 체험 역시 아이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다. 어린아이들은 하얀 가운을 입고 의사가 되어 인형에 주사를 놓는가 하면 초콜릿 불을 약 봉투에 담는 등 직접 약을 지으며 작게나마 의료인의 꿈을 키워보는 시간을 가졌다.

정신건강의학과와 신경외과의 ‘치매조기발견검사’ 부스는 어르신들로 금세 자리가 채워졌다. 정신건강의학과 박진 전공의는 “선별검사를 통해 경도인지장애를 판단하여 각각에 맞는 의료 처방을 내려주고 있어요. 치매가 아닐 경우 생활습관의 개선을 유도하고, 증상이 심할 경우에는 병원 치료를 권하고 있죠”라며 병원에 방문하기 힘든 분들이 무료 진료소 내 간단한 검사를 통해 자신의 상태를 파악하고 안심하는 모습을 볼 때면 뿌듯함을 느낀다고 전했다. 온종일 쉬 없이 수많은 환자를 마주하는 의료진은 몸은 힘들지만, 마음만은 따뜻해짐을 느끼며 ‘찾아가는 진료 서비스’를 몸소 실천했다.

정형외과의 ‘골절 없는 세상’ 부스는 50~60대 여성 환자들로 가득했다. 정형외과 양재혁 전공의는 “골밀도를 측정해 골다공증 수치를 체크하고 위험도를 파악해요. 수치를 통해 자신의 상태를 파악할 수 있어 환자분들의 만족도가 높아요. 위험도가 높으

면 상담을 통해 치료 방향을 제시해 드립니다”라며 50~60대 여성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골다공증 접근 방법을 제시해 주고 있었다.

이곳에서 골밀도 검사를 받은 환자들은 바로 옆 류마티스내과와 재활의학과와의 ‘당신의 걸음, 안녕하십니까?’ 부스로 발길을 옮겼다. 걸음걸이를 분석·교정하며 골다공증에 필요한 칼슘 영양 상담을 통해 골다공증 예방을 위한 교육을 진행하는 곳이었다. 젊은 남성에게 많이 나타나는 통풍 상담도 가능해 특정 성별과 연령대에 상관없이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건강 콘텐츠로 많은 이들의 관심을 받았다.

코스모스처럼 활짝 핀 진료 서비스

무료 진료소의 열기는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뜨겁게 달아올랐다. 대기 줄이 길게 늘어선 부스 중 하나는 안과의 ‘다양한 시력 검사 체험’ 부스였다. 부스 이름 그대로 원거리 시력 측정부터 근거리 시력 측정, 색각 검사, 암슬러 격자 검사, 입체시 검사, 대비강도 검사 등 다양한 시력측정법을 한 번에 경험할 수 있어 큰 호응을 얻었다.

온종일 쉬 없이 수많은 환자를
마주하는 의료진은 몸은 힘들지만,
마음만은 따뜻해짐을 느끼며 ‘찾아가는
진료 서비스’를 몸소 실천했다.



Mini Interview

김재민 한양대학교구리병원장



올해도 변함없이 의료 봉사에 동참해준 임직원들에게 감사의 말을 전합니다. 시민들에게 올바른 건강 지식을 전달하고, 나눔을 실천하는 여러분들이 있기에 한양대학교구리병원이 더욱 성장해 나갈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환자 중심의 진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의료 봉사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건강한 삶을 위해 앞장서는 한양대학교구리병원이 되도록 노력합니다.

문수련 & 김소연 씨 가족



매년 구리코스모스축제에 방문하고 있는데 한양대학교구리병원에서 운영하는 체험 부스는 처음 와봤습니다. 첫째 딸 꿈이 의사인데 이곳에서 직접 체험할 수 있어서 뜻깊은 기억으로 남을 것 같아요. 둘째는 약사 체험이 재미있었다고 해요. 초콜릿을 약으로 짓고, 물약도 담아서 약봉지 꾸러미로 만들어 주니까 선물 받은 기분이라고 하더군요. 덕분에 소중한 추억이 쌓였어요.



안과 옆 내분비내과의 ‘비만 당뇨 클리닉’ 부스 역시 혈당과 비만도를 측정하기 위한 사람들로 인산인해를 이뤘다. 당뇨 및 비만 유무를 확인해 줄 뿐만 아니라 진료가 필요한 대상자를 파악하여 영양 상담과 내분비내과 상담 등 진료가 가능하도록 치료 계획을 제시해주었다. 이 밖에도 치과의 ‘치과, 아름다운 미소를 위하여’ 부스에서는 구강 위생 교육과 구취 측정으로 환자들에게 필요한 건강 정보를 제공하는 데 힘썼다.

모든 진료과에서 상담을 받은 후 위험인자가 발견된 환자는 진료협력팀의 ‘아는 만큼 건강한 삶’ 부스를 방문해 필요한 진료과의 진료를 예약할 수 있다. 진료협력팀 황의순 팀장은 “진료협력팀은 환자에게 치료가 필요한 경우 즉시 진료 예약을 도와 찾아가는 진료 서비스의 역할을 제대로 실천하는 중”이라며 건강축제 제한마당은 진료 상담과 진료 예약이 동시에 가능한 환자 중심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밝혔다.

건강축제제한마당은 무료 진료 외에도 축제에 빠질 수 없는 경품 추첨으로 더욱 풍성한 시간이 되었다. 올해는 지난 7월 신축된 한양대학교구리병원 신관 건물 내 건강증진센터에서 사용할 수 있는 백만 원 상당의 종합검진권이 1등 상품으로 나와 모두의 관심을 받았다.

1등 당첨자 중 한 명은 평소 한양대학교구리병원을 방문하는 고객 중 한 명으로 꼭 필요한 선물을 받았다고 기쁨을 감추지 않았다. 경품 추첨과 더불어 축제 중간중간엔 다채로운 공연도 이어졌다. 스트링 듀오의 전자 바이올린과 첼로 연주는 클래식을 색다르게 즐기는 기회가 되었고, 요벨팍스 앙상블, 합기도, 난타와 가야금의 두드림 공연 등 다양한 볼거리가 펼쳐져 현장은 즐거운 축제 그 자체가 되었다.

환자를 먼저 생각하는 한양대학교구리병원의 따뜻한 마음은 2017 구리코스모스축제를 건강한 축제로 완성했다. 이는 한양대학교구리병원 임직원 모두가 초심을 잃지 않고 건강한 사랑을 꽃피운 덕분이다.☺

예고 없는 이별과의 전쟁, 급성 뇌질환

연도별 뇌혈관 환자 추이

출처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2009 80만 9735명

2010 85만 4352명

2011 90만 4677명

2012 93만 2237명

2013 95만 5007명



글. 이윤재 교수 한양대학교병원 응급의학과

필자는 급성 뇌출혈로 10세 정도의 지능과 치매, 그리고 그 상태로 와상 중인 거동불능의 아버지를 모시고 있다. 2009년, 다른 환자와 그들의 가족과 마찬가지로 예고 없이 일은 닥쳐왔고, 아버지는 더는 내가 예전에 알던 모습이 아니게 되었다. 돌아가시지 않고 여전히 내 곁에 있어 주셔서 감사한 생각은 들지만, 이것은 마치 '예고 없는 이별'과 다를 것이 없다. 그리고, 당시에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무거운 감정들과 별개로 불어가는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너무도 힘들었던 기억이 생생하다.

2016년 사망원인 통계 (출처 : 통계청)

사망원인	사망자 수 (인구 10만 명 당)	증감률 (전년대비)
악성신생물(암)	78,194 명	1.4% △
심장질환	29,735 명	4.6% △
뇌혈관질환	23,415 명	-4.6% ▼
폐렴	16,476 명	11.6% △
고의적 자해(자살)	13,092 명	-3.4% ▼
당뇨병	9,807 명	-7.4% ▼
만성 하기도질환	6,992 명	-7.5% ▼
간질환	6,798 명	-1.0% ▼
고혈압성질환	5,416 명	6.9% △
운수 사고	5,150 명	-7.3%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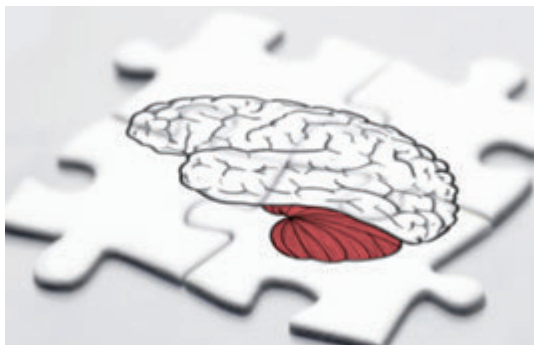
암이나 기타 질환들은 급성 사망에 이르지 않고, 사망에 도달하는 데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리는 만성질환이다. 그에 반해 급성 뇌혈관질환은 예고 없이 갑작스럽게 증상이 생기고, 이러한 증상에 본인도 가족도 힘든 시간을 보내게 된다. 뇌혈관질환은 암과 심장질환과 함께 전체 사망 원인의 3위 안에 들어가는 질환이며, 심장질환과는 2위를 두고 엇치락뒤치락하고 있다.

뇌혈관질환은 크게 뇌혈관이 압력을 받아 손상되며 발생하는 '뇌출혈'과 뇌혈관 내부의 통로가 좁아지거나 통로를 막는 혈전에 의한 '뇌경색'으로 구분할 수 있다. 그리고 그 증상이 전형적이어서 쉽게 진단되기도 하지만, 애매하거나 진단하기 어려운 증상을 보이는 경우에는 다른 '진단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는 급성 질환' 중에서도 매우 주의를 요하는 질환이다. 빠른 판단과 빠른 처치에 의해 환자의 예후가 달라질 수 있어서 진단하기 어렵다고 하더라도 필자와 같은 고통을 환자와 그 가족들이 겪게 하지 않기 위해서는 반드시 초기에 잡아내야 한다. 한양대학교병원은 실제적인 경험이 풍부한 응급의

학과 전문의가 24시간 권역응급진료센터 내에 상주하며 이러한 환자들을 돌보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급성 뇌혈관질환과 같이 분, 초를 다투는 질환으로 내원하는 환자들을 빠르게 진단하고 처치 받을 수 있도록 응급중환자실과 그 병상을 보유하고 있으며, 언제 어떤 뇌혈관질환으로 내원하는 환자라도 적절한 치료를 적절한 시기 내에 받을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다.

한양대학교병원이 이러한 진료가 가능한 이유는, 권역응급진료센터 내에 응급의학과 전문의가 24시간 상주하는 것은 물론, 10개의 급성 질환 군을 정하고 그에 대한 신속치료지침을 구성하여 정해진 지침대로 진료와 진행되도록 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10개의 급성 질환 군 중에 뇌혈관질환이 포함되어 있어서 응급의학과 의료진들은 신경과, 신경외과, 재활의학과, 영상의학과 의료진들과 함께 권역응급의료센터를 365일 24시간 지키고 있다. 예고 없는 이별과의 최전선에서 시간과 다투며, 신속치료지침을 통해 뇌혈관질환의 경우 1시간 안에 치료가 시작되도록 운영 중이다.

노년의 불청객 뇌졸중, 증상부터 예방법까지



뇌졸중은 ‘갑작스럽게 진행되는 국소적인 또는 완전한 뇌기능장애가 24시간 이상 지속하거나 심하면 사망에 이르는 질환으로, 뇌혈관의 병 이외 다른 원인이 없는 경우’로 정의한다. 나이가 많을수록 발병 확률이 높아져 사회경제적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뇌졸중의 적절한 치료와 예방에 대해 알아본다.

글. 김영서 교수
한양대학교병원 신경과



뇌졸중은 뇌혈관이 막혀서 발생하는 허혈성 뇌졸중(뇌경색)과 뇌혈관이 터져서 발생하는 출혈성 뇌졸중(뇌출혈)으로 나뉜다. 세계적으로 두 번째로 중요한 사망 원인이며, 우리나라의 연간 뇌졸중 발생은 약 10만 건 정도로 추정된다. 최근 서구적인 음식 습관과 비만 인구가 늘어나면서 젊은 환자에게도 발생률이 많이 높아졌으나, 나이가 들수록 발생이 증가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노인 인구가 급속히 증가하면서 뇌졸중 환자도 함께 증가하고 있으며, 뇌졸중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중요성도 더욱 커지고 있다.

뇌졸중의 증상과 치료

뇌졸중으로 인한 뇌기능장애는 다양한 임상 양상을 보인다. 가장 흔한 증상으로는 한쪽의 팔다리가 마비되어 움직이지 않는 편측 마비가 있으며, 이 외에도 안면마비, 발음장애, 언어장애, 감각저하, 시야장애, 복시, 어지럼증, 삼킴장애, 의식장애 등이 있을 수 있다. 일반적으로 뇌졸중으로 인한 뇌기능장애는 정상적인 몸의 기능이 없어지는 ‘음성 증상’이며, 뒷머리가 빠근해지는 두통이나 손발 저림, 손떨림, 경련, 통증 등 몸의 기능이 더 심해지는 ‘양성 증상’은 뇌졸중일 가능성이 매우 낮다. 두통의 경우 매우 큰 뇌경색이나 거미막하출혈, 큰 뇌출혈 등에서 나타날 수는 있으나, 이런 경우 두통이 견딜 수 없을 정도로 증상이 매우 심하며 의식이 저하되는 경우가 많아서 참을 수 있을 만한 두통은 뇌졸중이 아니라고 생각해도 무방하다.

뇌졸중의 증상을 잘 알아야 하는 이유는 뇌졸중의 치료가 최대한 빨리 진행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혈관이 막히는 뇌경색의 경우 막힌 혈관을 뚫는 치료(혈전용해술)를 6시간 이내에만 할 수 있으며, 혈관이 빨리 뚫릴수록 환자의 예후가 좋아질 가능성이 높아지므로 신속하게 병원에 와서 혈전용해술이 필요한지 검사를 받아야 한다. 6시간이 지난 경우에는 혈관을 뚫는 치료는 불가능하며, 급성기 신경학적 악화 및 내과적 합병증을 차단하기 위한 치료가 시작된다.

최근 중대형병원에 신설되고 있는 뇌졸중 집중치료실은 최적의 내과적 치료를 위한 집중관리 병실로서 뇌졸중 집중치료실에 입원하는 경우 좀 더 전문적인 치료와 함께 좋은 예후를 기대할 수 있다. 혈관이 터지는 뇌출혈은 출혈이 큰 경우 응급으로 수술이 필요할 수 있으며, 재출혈과 혈관연축 등을 막기 위한 내과적 치료가 병행된다. 이 경우에도 빠른 치료가 환자의 예후에 도움이 될 수 있으므로, 뇌졸중 증상이 발생하면 119에 연락해 최대한

[뇌졸중 치료를 위해 FAST를 꼭 기억하세요]



빨리 응급실에 방문하는 것이 중요하다. 급성기가 지난 이후에는 뇌졸중 증상에 대하여 적극적인 재활 치료와 함께, 뇌졸중이 발생한 원인을 파악하여 재발을 막고 각종 위험인자를 조절하기 위한 치료가 시작되어야 한다. 뇌졸중은 한 번 발생한 사람이 반복적으로 발생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재발이나 합병증 발생을 경감시키기 위해서는 적절한 투약과 위험인자의 조절이 필요하다.

뇌졸중 예방을 위한 위험인자의 조절

뇌졸중의 예방은 뇌졸중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1차 예방과, 뇌졸중이 한 번 발생했던 사람들이 재발을 막기 위한 2차 예방으로 분류된다. 1차 예방과 2차 예방에 공통적인 요소는 뇌졸중을 발생시키는 각종 위험인자의 조절이다. 뇌졸중의 위험인자는 교정이 불가능한 ‘성별(남성이 더 많음)’, ‘나이(고령일수록 많음)’, ‘가족력’ 등이 있으며 교정이 가능한 위험인자들로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심방세동, 흡연, 술, 비만, 운동 부족 등이 있다. 특히 고혈압은 뇌졸중을 유발시키는 가장 중요한 위험인자로 혈압 조절이 잘 되는 경우 뇌졸중의 발생 빈도가 약 40% 정도 감소한다고 알려져 있다. 고혈압이나 당뇨, 고지혈증 등은 일반적으로 증상이 크게 없기 때문에 미미한 건강검진을 통해 본인의 상태를 파악하고 교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심방세동은 뇌졸중 발생 빈도를 3~4배까지 증가시키는 질환으로 대개 증상이 심한 뇌졸중을 일으키므로 예방을 미리 하는 것이 좋다. 심방세동은 나이가 많아질수록 유병률이 높아지므로 가슴이 뛰거나 숨이 차는 증상과 함께 심장박동이 불규칙적으로 느껴진다면 미리 검진을 받아봐야 한다. 심방세동으로 인해 심장에서 만들어지는 혈전을 약으로 녹이는 경우 약 80%까지도 뇌졸중을 예방할 수 있다고 알려져 있다. 생활습관 문제인 흡연이나 술, 비만, 운동 부족 등도 뇌졸중을 유발하는 중요한 위험인자다. 담배는 필히 끊어야 하며, 술은 하루에 한 두잔 이내로만 섭

취하고 운동과 식이관리를 통해 비만이 오지 않도록 꾸준히 노력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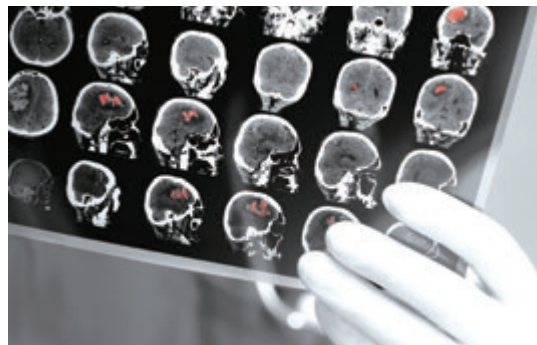
뇌졸중 예방을 위한 약물치료

뇌졸중 예방을 위한 약물치료는 대개 2차 예방을 위해 사용한다. 뇌졸중 증상이 없었던 사람들은 뇌혈관에 무증상 뇌경색이 있거나 뇌혈관이 좁아져 있지 않은 이상 약물치료를 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일부 혈압이나, 당뇨, 고지혈증이 있는 사람이 아스피린과 같은 항혈전제를 같이 먹는 경우도 있으나 효과가 완전히 증명되지는 않았으며, 환자의 위험도에 따라 복용을 할 수도 있으니 주치의와 잘 상의해야 한다.

뇌경색이 있었던 환자들은 혈관이 더 이상 막히지 않기 위해 다양한 약물을 사용한다. 가장 흔하게 쓰이는 약물은 아스피린으로 하루 한 번 100mg을 복용하며, 하루 중 언제 먹어도 상관없다. 아스피린에 알레르기가 있거나 위장장애가 있는 사람들은 클로피도그렐 75mg을 하루 한 번 복용하기도 하며 실로스타졸 200mg이나 트립플루잘 600mg을 사용할 수도 있다. 심한 뇌혈관 이상이 있거나 심장혈관 이상이 동반된 경우 여러 약물을 복합적으로 투여하기도 한다.

심방세동과 같은 심장질환에 의한 뇌경색의 경우에는 항응고제를 사용하며, 와파린이나 새로운 경구항응고제를 사용하여 예방하기도 한다. 뇌졸중 2차 예방을 위한 약물은 현재의 증상을 낮추기 위함이 아니며,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뇌졸중을 예방하기 위함으로 적절한 약물을 선택하여 평생 복용하여야 한다. 약물이 단순히 혈관이 막히는 것을 막는 것이므로 약간의 멍이 들거나 지혈이 지연될 수는 있으나 심한 출혈이 동반되지 않는 이상 증상이 좋아졌다고 약물을 중단해서는 안 된다. 약물의 부작용이 있는 경우 주치의와 상의하여 본인한테 가장 잘 맞는 적절한 약물로 변경하는 것이 필요하다.📞

일본일초가 관건, 뇌출혈의 수술적 치료



뇌출혈은 뇌경색보다 빈도는 낮지만 더 심각하고 급작스러운 증상을 보이며 최종 예후도 불량한 경우가 많다. 되도록 빠른 시간 내에 응급실을 방문하여 검사하고 조치를 취하는 것이 중요하다. 일본일초가 관건인 뇌출혈의 증상, 종류와 치료방법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글. 이형중 교수
한양대학교병원 신경외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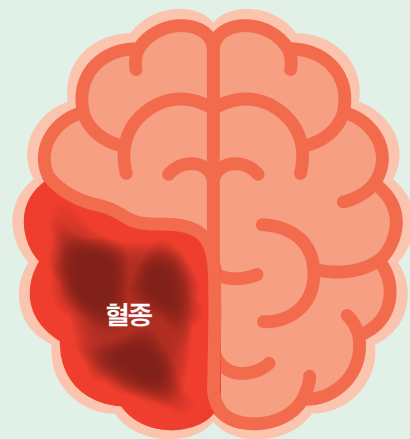
뇌졸중(stroke)은 라틴어인 apoplexia에서 유래된 말로서 마치 번개에 맞은 듯(plessin) 감각과 운동이 돌연히 그리고 완전히(apo) 사라져버리는 상태를 의미하며 결국 '혈관의 이상에 의해 갑자기 발생한 뇌기능장애'로 정의될 수 있다. 혈관(뇌혈관과 목 부위의 혈관)의 이상은 크게 혈관이 막히거나 좁아지는 허혈성(뇌경색) 뇌졸중과 혈관이 터지는 출혈성 뇌졸중으로 구분되며 뇌출혈은 전체 뇌졸중의 20% 정도를 차지한다.

뇌출혈은 뇌경색에 비해 수술적인 치료가 필요한 경우가 많다. 뇌출혈은 터진 혈관, 뇌 부위, 갖고 있는 질병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인 증상으로는 경험해보지 못한 심한 두통, 구역질, 구토, 어지러움 증상이 흔하며, 심한 경우 뇌조직 파괴에 따른 신경학적 결손 증상이나 숨골압박에 의한 의식 변화를 초래할 수 있다. 대표적인 신경학적 증상으로는 말이 어눌해지는 현상, 한쪽 팔과 다리의 마비 증상 또는 안면 마비 증상을 들 수 있다. 위와 같은 증상으로 뇌출혈이 의심되는 경우에 되도록 빠른 시간 내에 응급실을 방문하여 검사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뇌출혈의 구분과 치료 방법

뇌내출혈

뇌출혈은 파열된 혈관, 출혈 부위에 따라 구분한다. 뇌의 심부조직을 공급하는 미세혈관 파열에 의한 뇌내출혈은 대부분 만성고혈압에 의해 발생하는데 응급실에서 촬영한 뇌 CT검사에서 출혈의 최대 직경이 2.5 cm 이상인 경우는 핏덩어리(혈종)라고 부르며 그 위치와 양에 따라 치료의 방법이 달라진다. 적은 양의 출혈



뇌내출혈의 단면

(30cc 이하)은 높아진 뇌압을 낮추는 약물치료를 포함한 집중치료(중환자치료)와 조기에 시행되는 재활치료 등의 보존적인 비수술적 치료로 관리하는 경우가 많다.

뇌내출혈의 경우에는 출혈 발생 당시 이미 뇌조직의 손상이 생기기 때문에 수술이나 약물치료의 목적은 남아있는 뇌기능을 최대한 보존하여 추후 환자 회복을 도모하는 정도로 제한된다. 뇌내출혈은 발병 시 뇌혈관조영술을 통해 동반된 다음의 뇌혈관 이상을 확인해야 하는 경우도 있으며 질병의 진행과정 중에 뇌허혈, 뇌부종, 고혈압, 심폐 및 신장 기능장애에 대한 치료를 모두 수행해야 하므로 반드시 뇌졸중 치료가 가능한 종합병원으로 입원해 치료해야 한다.

뇌실내출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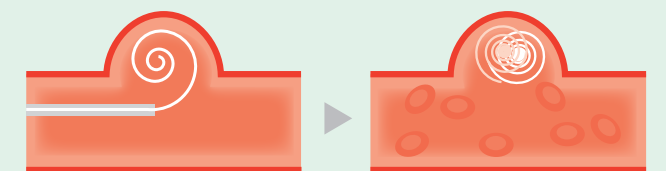
출혈량이 많거나 뇌척수액을 담는 뇌 안의 방(뇌실)에 생겨 흐름이 저하된 심한 뇌실내출혈은 뇌의 탈장으로 숨골을 압박하여 호흡-심장마비가 발생하거나 의식이 없어지는 경우가 많아 뇌 안의 압력을 신속히 낮추기 위하여 머리를 직접 열고 혈종을 제거하는 수술(두개골을 닫지 않고 개방하는 수술 포함), 또는 미세관(catheter)을 CT 항법장치를 이용하여 혈종 내부나 뇌실 안에 삽입하여 혈액을 녹이는 약제를 며칠 동안 주입하는 혈종배액 수술을 시행한다. 뇌압이 높은 경우, 신속하게 수술로 압력을 낮추지 못하면 뇌의 탈장(뇌허니아)으로 심한 후유증을 남기거나 사망에 이를 수 있다.

지주막하출혈(거미막하출혈)

뇌의 동맥류(압이 높은 뇌동맥 혈관벽이 약해져서 부풀어 오르는 파리 모양의 병)가 터져 생긴 지주막하출혈(거미막하출혈)은 뇌출혈 중에서 가장 다양한 합병증, 후유증(혈관연축, 수두증, 지연성 뇌경색 등)을 보여 수술과 약물치료가 함께 이루어져야 하는 매우 위험한 뇌졸중이다. 뇌주름 사이를 감싸는 거미(지주)막 모양의 얇은 막(지주막) 아래에는 붉은 뇌혈관과 뇌척수액이 정상적으로 흐르는데 동맥이 터져서 여기에 출혈이 생기면 순간적으로 뇌 전체에 걸쳐 출혈이 파급되므로 뇌압도 상승하고 뇌척수액 흐름도 장애를 받게 되어 엄청난 두통과 심하면 의식소실, 사망까지 발생할 수 있다. 환자의 사망률이 높은 편이며 치료 후 정상 생활은 40% 내에서 가능하다. 재출혈을 방지하기 위해 72시간 이내의 조기수술이 필수적이다.

뇌동맥류의 치료는 미세수술 동맥류 결찰술과 혈관 내 코일 색전

〔 뇌동맥류 환자의 치료 방법 〕



뇌혈관 내 중재술(코일 색전술)

술의 두 가지 방법이 있다. '동맥류 결찰술'은 수술현미경을 통해 확대된 시야로 직접 뇌혈관에 접근하여 금속집게로 동맥류를 묶는 방법이고, '혈관 내 코일 색전술'은 동맥 혈관을 통해서 매우 가는 도관을 동맥류 안에 넣어 백금으로 된 코일이나 스텐트를 삽입하여 동맥류 내부를 막아 더 이상 혈류가 가지 않게 하여 재출혈을 막는 방법이다.

동맥류와 위치와 모양, 출혈 정도, 그리고 환자의 상태에 따라서 의료진이 유리한 치료방법을 선택하거나 두 가지 방법을 병합할 수 있다. 반드시 수술이 필요하지만 수술 후에도 최소 2주 정도의 집중치료가 필요하다.

비교적 흔한 상기의 뇌출혈 이외에도 뇌혈관의 기형에 의해 발생하는 출혈이 있다. 뇌혈관이 서서히 막혀 아지랑이 같은 비정상적이고 가늘어 약해진 뇌혈관이 터지는 모야모야병, 선천적으로 동맥과 정맥 사이 모세혈관이 생기지 않아 정맥이 부풀어 올라 터지는 뇌혈관기형에 의한 뇌출혈, 동굴 모양의 모세혈관 확장에 의해 반복적으로 출혈되어 두통이나 경련이 생기는 해면혈관종, 후천적으로 외상이나 감염, 종양 등에 의해 발생하는 경막 동맥누공 등에 의한 출혈 등이 대표적이다. 이런 경우에는 뇌상태를 보기 위한 CT, MRI 이외에도 뇌혈관을 평가하기 위해 뇌혈관조영술이 필요하며, 환자의 상태, 출혈 정도, 위치에 따라 약물치료, 수술치료, 뇌혈관 내 중재술, 노발리스 등을 이용한 방사선 수술 등의 다양한 방법이 함께 사용된다.🏥

중추성일과 말초성일과 어지럼증 진단의 첫걸음



누구나 한 번쯤은 차멀미를 하는 것처럼 공간이 빙빙
돌거나 중심을 잡기 어려운 증상을 느낄 수 있다. 어
지럼증은 매우 흔한 증상으로 일상에서 자주 접할 수
있는 질환의 하나다. 대부분의 어지럼증은 귀속에 있
는 전정기관의 문제로 발생하지만 소뇌의 경색, 출혈
등 중추 신경계질환도 어지럼증을 유발한다.

글. 정재호 교수

한양대학교구리병원 이비인후과



어지럼증은 그 원인에 따라 진단과 치료 등 모든 것이 달라질 수 있
다. 따라서 어지럼증의 원인 질환에 대한 진단이 어지럼증 치료에
매우 중요하며, 말초성 어지럼증(전정기관의 이상), 중추성 어지럼
증(신경계의 이상)을 구별하는 것은 어지럼증 진단의 첫걸음이다.

어지럼증이란?

어지럼증은 현대인이 겪는 흔한 증상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에 따르면, 2015년 한 해 동안 어지럼증으로 병원을 찾은 인
원은 76만3442명에 이르며, 어지럼증 환자 수는 급격하게 증가
하고 있다. 어지럼증은 실제로 눈앞이 도는 듯한 회전성 어지럼
증에서부터 경미한 의식 저하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증상으로 나
타날 수 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어지럽다’는 한 단어로 축약되
기 때문에 정확한 증상 파악이 어렵고, 그 원인이 다양해 정확한
진단이 쉽지 않다. 따라서 본인이 느끼는 어지럼증의 특징을 정
확하게 표현하는 것은 진단에 많은 도움이 된다.

가만히 있어도 세상이 도는 것처럼 느껴지는 상태는 현훈(회전성
어지럼)이라고 하며, 이는 내이의 전정기관 이상으로 발생할 수
있다. 흔히 ‘머리가 핑 돈다’, ‘눈앞이 깜깜해지면서 기절할 것 같
다’라고 표현되는 전실신(presyncope)은 뇌로 가는 혈류가 줄어
들 때 나타나는 증상이다. 불균형감(Disequilibrium)은 ‘물체가 흔
들린다’, ‘몸 중심잡기가 힘들다’, ‘비틀비틀 걷게 된다’라고 호소
하며, 양측 전정기능이 소실되거나, 체성 감각이 떨어질 때, 혹은
소뇌 기능에 문제가 있을 때 발생한다. 이밖에도 시각 자극과 관
련되어 어지럼을 느낄 수 있으며, 이는 ‘어질한 증상’, ‘땅이 꺼지
는 것 같다’는 형태로 표현된다. 따라서, 어지럼증이 회전성인가
혹은 비회전성인가, 어지럼증이 발생하면 얼마나 오랫동안 지속
되는가, 자발적으로 생기는가 아니면 유발되는가, 움직임에 따라
증상이 악화되는가와 같은 증상의 특성만으로도 말초성, 중추성
어지럼증을 감별하는 데에는 큰 도움이 된다.

말초성 어지럼증

말초성 어지럼증은 귀, 엄밀히 내이에 존재하는 달팽이관과 인접
한 세반고리관 또는 전정기관, 이들의 정보를 전달하는 전정신경
에 문제가 생겨 발생하는 어지럼증을 뜻한다. 대략 어지럼증으로
병원을 찾는 환자들 중 80%가량이 이러한 말초성 어지럼증 환
자들이며, 보통은 이비인후과에서 진찰 및 치료를 받고 호전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말초성 어지럼증은 흔히 환자 자신과 주변이
함께 도는 느낌을 갖게 되는 현훈을 호소하거나, 뺨멀미를 하듯

땅이 아래위로 흔들린다고 표현한다. 일반적으로 어지럼증이 돌
발적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흔하며, 머리의 움직임이나 체위 변환
에 따라 어지럼증이 유발되거나 악화되는 경우가 많다. 동반되는
증상으로는 오심과 구토, 이명, 청력소실 등이 있다.

말초성 어지럼증의 질환들

● 양성자세현훈(이석증)

가장 대표적인 말초성 어지럼증질환은 ‘양성자세현훈’으로 흔히
‘이석증’이라고도 한다. 머리를 움직일 때마다 순간적으로 발생하
는 현훈이 특징적인 증상이며, 전정기관의 이석(耳石)이 세반고
리관 내부로 들어가 머리가 움직일 때에 증상을 나타낸다. 양성
자세현훈은 이석치환술을 통해 세반고리관 내부의 이석을 원래
자리로 이동시키면 쉽게 치료할 수 있다.

● 전정신경염

양성자세현훈 다음으로 빈도가 높은 말초성 어지럼증의 질환은
‘전정신경염’이다. 갑자기 한쪽 귀의 전정기능이 손상되어 어지럼
증이 발생하며, 증상은 수일간 지속된다. 급성기에는 어지럼증이
매우 심하나 대부분 1~2주 내에 호전된다.

● 메니에르씨병

반복되는 어지럼증과 동시에 귀가 먹먹해지거나, 귀에서 ‘웅’ 소
리가 나는 경우는 메니에르씨병을 의심해볼 수 있다. 이는 평형
을 담당하는 전정 기관과 청력을 담당하는 달팽이관 내부의 림프
액의 압력이 높아져서 발생할 수 있으며, 어지럼증이 반복되면서
청력 손상이 동반되므로 반드시 이비인후과에서 진단을 받고 치
료하는 것이 중요하다.

중추성 어지럼증

소뇌는 움직임을 감지하는 평형기관과 평형기관에서 오는 모든
정보를 통합하고 처리하는 기능을 한다. 평형기관과 소뇌는 신경
계를 통해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어 신경계에 문제가 생기면 어지
럼을 느낀다. 전정기관은 정상이지만, 결국 평형감각 및 회전감
각 정보를 전달받고 통합하는 최종 목적지인 소뇌에 문제가 있
는 경우 중추성 어지럼증이라고 한다. 중추성 어지럼증은 말초성
어지럼증에 비해 흔하진 않지만, 뇌경색, 뇌출혈, 뇌종양, 뇌혈관
장애 등의 원인으로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빠른 진단과 치료가
이뤄지지 않을 시 심각한 후유증 또는 생명에 지장을 주기 때문

데 정확하고 빠른 진단과 치료가 필요하다. 증상만으로는 말초
성 어지럼증이 의심되더라도, 어지럼증의 경과가 비특이적인 경
우는 중추성 어지럼증을 감별하기 위해 MRI, CT 등의 영상의학
적 검사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

표1. 말초성 어지럼증과 중추성 어지럼증의 증상 비교

	말초성 어지럼증	중추성 어지럼증
지속 시간	간헐적	지속적
회전 방향	일측성	다양한 방향
의식 소실	없다	드물다
자세불안	약간의 자세불안 호소	심한 자세불안 호소
뇌신경 증상	드물다	흔하다
귀증상(난청, 이명)	동반	드물다
회복 여부	빠른 회복	더딘 회복



어지럼증 증상 체크 리스트

1. 회전성 어지럼증 여부 확인

- 주변이 빙글빙글 도는 듯한 회전성 어지럼증을 호소하는 경우는 귀(전정기관)의 이상으로 어지럼증이 발생하는 경
우가 많다.

2. 어지럼증의 지속기간

- 말초성 원인의 어지럼증은 단기간 동안 일시적으로 나타나
는 경우가 많다. 반면 중추성 어지럼증의 경우 오랜기간 동
안 어지럼증이 지속된다.

3. 어지럼증과 함께 나타나는 증상이 무엇인가?

- 어지럼증과 동시에 나타나는 증상은 어지럼증의 원인을 찾
는 데에 매우 중요하다. 이명, 이충만감, 난청이 동반되는
경우는 전정기관의 문제로 어지럼증이 발생하였을 가능성
이 높은 반면, 어지럼증이 심한 두통, 안면마비, 감각이상,
연하 곤란, 구음장애 등의 뇌신경 관련 증상이 동반되는 경
우는 뇌경색, 뇌출혈 등 중추성 어지럼증을 의심해야 한다.

앞사기는 의술을 펼치는
한양대학교의료원의
핫이슈를 소개합니다.



‘한 수 위 감염관리 시스템’으로 국민 안전지수 업그레이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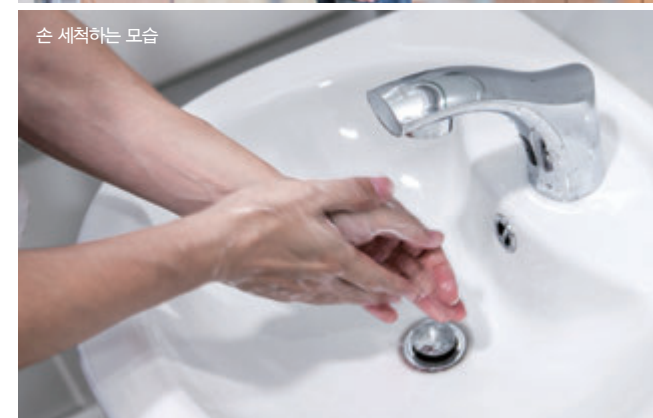
한양대학교병원 감염관리 시스템

2015년 메르스 사태가 ‘의료 강국 코리아’의 자존심을 무너뜨린 후, 국민의 불안은 바 이러스보다 빠르게 퍼졌다. 글로벌 시대에 신종 감염병에서 예외인 나라는 없다. 한양대 학교병원이 ‘한 수 위 감염 예방 시스템’을 구축하고 고강도 안전관리에 나선 이유다.

글. 윤진아 사진. 정우철



한양대학교병원 응급의학과 강형구 교수와 감염관리실 정선주 파트장이
감염관리에 관해 논의 중인 모습



한양대학교병원, ‘병원인객 통제 시스템’ 전면 시행

한양대학교병원은 지난 9월부터 모든 병동의 출입 통로에 스크린도어를 설치하고 방문인객 출입통제 시스템을 가동했다. 보건복지부의 ‘의료기관 입원환자 방문안 기준 권고’에 따라 병원 출입구 및 병동은 허용 시간에만 개방된다. 무분별한 방문 면회 에 따른 감염 확산을 방지하고자 도입된 출입통제 시스템에 따라, 보호자의 경우 1인에 한해 본관 1층에서 병동출입증이 발급된다. 입원환자는 입원 시 발급된 손목밴드형 환자 인식표의 바코드를 이용해 병동 출입이 가능하다. 그 외 면회객은 지정된 시간에만 방문이 가능해졌다. 일반병실은 평일 오후 6시~8시, 주말 및 공휴일 오전 10시~12시, 오후 6시~8시까지 방문안이 허용된다. 직원들도 예외는 없다. 전자태그(RFID)가 내장된 사원증을 통해 구역별 보안등급에 따라 출입 권한을 부여 받은 직원만 병동 출입이 가능하다. 중환자실은 면회기능이 크게 떨어져 각종 병원균으로부터 보호를 받아야 할 중환자가 모여 있는 만큼, 병원 내 어떤 곳보다 감염 관리가 중요하다. 출입 통제라는 고강도의 감염 예방 시스템이 절실하지만, 이제 시작 단계다 보니 더러 실랑이도 벌어지곤 한다.

한양대학교병원에서 수년째 간병인으로 근무해온 최춘자(71)씨는 “처음엔 마음대로 출입할 수도 없으니 고립된 기분마저 들었지만, 모두의 안전을 위한 선택이라고 생각하니 한결 마음이 놓인다”며 “아프지도 않은 사람이 자주 들락거리면 본인은 물론 환자 안정과 감염 관리에 좋을 리 있겠나. 환자도 보호자도 일하는 사람들도 차츰 인식이 바뀌고 있으니, 병원안 문화가 앞으로 많이 바뀔 것 같다”고 전했다.

안정된 공간에서 효율적으로 이뤄지는 최상의 치료

지난해 12월 개소한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은 비교적 일찌감치 출입통제 시스템에 안착 중이다. 전문인력이 24시간 간호 서비스를 제공하는 본원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은 감염 확산 예방을 위해 면회객을 제한하여 다른 질병 감염의 위험으로부터 안전을 보장하고 있다.

올 1월 문을 연 권역응급의료센터는 타 병원에서 해결하지 못하는 환자나 타 병원 응급실에서 수용할 수 없는 환자들을 모두 수용하는 만큼 더욱 엄격한 감염관리를 실시하고 있다. 한양대학교병원 권역응급의료센터는 감염병 유행에 대비해 각 출입구



방호복을 착용한 의료진 모습



음압격리구역 입구

한양대학교병원은 항생제 내성균 감염관리 지침을 마련하고 장기환자 선별검사, 타 병원 경유 환자 선별검사, 격리병상 운영 등 질병관리본부 권고 수준 이상의 적극적인 관리를 통해 감염 전파를 철저히 통제하고 있다.

에 폐쇄회로 카메라(CCTV)와 발열 감지 카메라를 설치, 출입 문 개폐장치와 연동시킴으로써 발열 환자의 출입을 원천 봉쇄했다. 이와 더불어 출입구마다 배치된 안내요원이 의심 환자에게 감염 징후 사안을 문의하고, 감염 의심환자에 해당하는 경우 별도의 발열/감염환자용 출입구로 유도한다. 외부의 오염원이 실내로 유입되지 못하도록 방지하는 음압공조시스템도 설치했다. 뿐만 아니다. 진료·치치 공간에 설치된 격벽 차단 시설은 대량 감염이 발생했을 경우 감염환자 공간과 일반환자 공간을 분리한다. 응급진료센터 구역 곳곳을 탄력적으로 폐쇄할 수 있는 시스템을 도입한 것이다. 보호자의 출입 역시 카드 명찰을 통해 제한하는 시스템으로 관리하고 있다.

감염병 예방 위해 “할 수 있는 건 다한다”

최근 의료기관 항생제 내성률 문제가 대두되면서 소비자의 우려도 커졌다. 한양대학교병원은 항생제 내성균 감염관리 지침을 마련하고 장기환자 선별검사, 타 병원 경유 환자 선별검사, 격리 병상 운영 등 질병관리본부 권고 수준 이상의 적극적인 관리를 통해 감염 전파를 철저히 통제하고 있다. 소독 전담 인력을 배치해 감염 환자 퇴원 시 침상 소독을 실시하여 보다 안전한 병동이 될 수 있도록 노력 중이다.

또한, 요양원 등에서 내원하는 장기입원환자 감염관리 및 병원 시설/환경 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다. 한양대학교병원 감염관리실장 배현주 감염내과 교수는 “현재 다수 병원에서 ‘감염관련 수칙’을 시행 중이지만, 감염 예방을 위해서는 결국 관리 인력·장비·물품·진료환경의 변화가 수반돼야 한다”며 “환자와 보호자들이 느끼는 안정감은 치료 및 이후 경과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소”라고 설명했다.

“카바페넴(carbapenem)계 항생제에 내성을 나타내는 장내세균



회의 중인 감염관리실 직원들

속균종이 전 세계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한양대학교병원은 최근 첫 병원제 보유자가 확인된 이후 엄격한 관리를 시행, 카바페넴계 항생제 내성률을 타 대학병원보다 낮은 수준으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한양대학교병원은 최근 전 세계적으로 많은 우려를 낳고 있는 카바페넴 내성 장내세균이 분리되는지 감시하고, 분리되는 경우에는 환자 격리, 개인보호구 사용, 접촉자 검사 등 전방위 감염 관리를 통해 확산 방지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에 따라 첫 보균자 발생 이후 2차 감염자나 보균자가 추가로 발생하지 않는 것은 물론, 국내 평균 발생건수의 절반 이하로 유지하고 있다. “혈류감염을 포함한 병원 내 감염관리는 매우 광범위하게, 다각도로 접근해야 합니다. 앞으로 더 많은 중증 응급환자, 만성 고령환자가 우리 병원을 찾게 될 텐데요. 병원을 찾는 중증, 응급 환자가 늘어갈수록 병원 역시 더 많은 위험을 감수해야 하겠지만, 더욱 적극적인 관리로 안전한 의료환경을 구축하며 국가 감염관리시스템의 올바른 모델을 제시해 나가겠습니다.”

환자도 보호자도 ‘감염 걱정 뚫!’

감염관리실(실장 배현주 감염내과 교수)의 24시간은 긴장을 늦출 수 없는 일과의 반복이다. ▲감염관리 규정 및 지침 제/개

정 ▲감염 발생 감시 ▲감염관리 수행도 모니터링 및 분석 ▲조사대상 특성별 통계적 검증 및 감염발생률 추이 비교 ▲감염병 환자 관리 및 감염 예방자원 지원 ▲집단 감염 여부 조사와 원인 규명 ▲병원 직원 의료감염 예방교육 및 자문 등등 빈틈 없는 감염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한양대학교병원 감염관리실은 감염내과 배현주 교수, 소아청소년과 감염분과 오성희 교수, 진단검사의학과 미생물분과 이양순 교수를 필두로 6명의 감염관리전담간호사가 긴밀히 움직이며 ‘한 수 위 감염관리 시스템’을 구축 중이다. 시간이 지날수록 할 일이 더욱 분명해지는 것을 느낀다는 감염관리실 정선주 파트장은 “우리의 관심과 노력 하나하나가 감염관리 시스템의 표준이 된다는 사명감으로 일하고 있다”고 말했다.

감염관리실장 배현주 교수는 감염관리는 감염확산뿐만 아니라 환자와 방문객 모두의 안전을 위한 선택임을 강조했다. “조금은 생소한 시스템에 처음엔 의아해하던 분들도 많았지만, 약간의 불편을 감수함으로써 감염의 위험을 원천봉쇄한다는 데 점차 높은 만족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입원 환자의 안전과 빠른 회복을 위해 12세 이하 아동, 감염성질환자, 단체방문 등은 병문안 자제를 당부합니다. 환자들이 편안한 마음으로 회복에 전념하고 보호자도 감염으로부터 안전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의료환경을 구축하겠습니다.”🙏



중증도 단계에 따라 환자를 분류하는 팔찌 색상

한양대학교의료원
의료진의 '친절한' 설명으로
그 치료법과 예방법을
알아봅니다.



2010년 군복무 중 돌연 자취를 감춘 배우가 있었다. <소울메이트>, <구름계단>, <편의 전쟁> 등을 통해 대중에게 강한 인상을 남긴 배우의 이름은 신동욱이다. 언론을 통해 그가 희소병으로 의가사 제대했다는 사실이 전해졌고 팬들은 큰 충격을 받았다. 입대 전 팬들 앞에서 환하게 웃으며 떠났던 그는 군대에서 복합부위통증증후군(CRPS) 진단을 받은 것.

복합부위통증증후군은 특별한 자극 없이도 팔이나 손가락 등의 환부에 바늘로 찌르는 듯한 통증, 예리한 칼에 베이는 듯한 통증, 쥐어짜는 듯한 통증 등이 나타나는 질환을 말한다. 제대 후 신동욱 씨는 일체의 연예활동을 중단하고 본격적인 투병 생활에 들어갔다. 대중들이 복합부위통증증후군이라는 질병을 알게 된 것도 그즈음이었다.

복합부위통증증후군으로 인한 신체적 고통이 상상 이상이라는 사실이 여러 매체를 통해 알려지면서 질환에 대한 대중들의 관심도 날로 커져 갔다. 얼마 전 방송 복귀를 선언한 그는 한 예능프로그램을 통해 “한때 바람만 불어도 칼에 베이는 것처럼

신체 고통의 끝판왕 복합부위통증증후군

배우 신동욱과 복합부위통증증후군(CRPS)

미국과 유럽의 통계에 따르면 인구 10만 명당 약 6~25명 정도가 복합부위통증증후군으로 고생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남성보다는 여성에게 약 2~3배 정도 많고, 20~70대에 가장 흔하다. 아직 뚜렷한 치료법은 없어 한번 걸리면 상당히 오랜 기간 고통을 받아야 한다. 정리. 편집실

● ● ● ●

CRPS

몸이 아팠다”며 복합부위통증증후군의 어려움을 털어놓기도 했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고통, 복합부위통증증후군은 어떤 질환일까?

복합부위통증증후군, CRPS(Complex Regional Pain Syndrome)는 과거 작열통(causalgia)이나 반사성교감신경위축증(reflex sympathetic dystrophy) 등으로 불리던 질환이다. 1993년 세계통증연구학회(IASP)에서 증상, 진단 기준, 병태생리적 기전이나 치료법 등에 대한 회의를 개최하였고 이러한 증상과 징후를 가진 질환군을 복합부위통증증후군이라고 명명하였다.

환자에 따라 다양한 증상과 징후를 호소하는데 극심한 통증을 포함하여 국소적 피부색과 온도의 변화, 부종과 같은 자율신경계 징후들, 피부나 손발톱의 이영양성 징후들을 확인할 수 있다. 지금까지 알려진 복합부위통증증후군을 일으킬 수 있는 위험요인으로는 장기간 동안 병에 걸린 사지를 고정하거나 사용을 하지 않는 경우, 흡연, 유전적 요인, 심리적 요인 등이 거론되고 있지만 명확히 밝혀진 것은 없다.👉



예리하고 깊은 고통이 특징,
치료 시작 빠를수록 좋아

심재항 교수
한양대학교구리병원 마취통증의학과



복합부위통증증후군 환자들이 호소하는 증상들은 매우 다양하고 그 정도도 각각 달라 한마디로 설명하기는 어렵다. 하지만 피부색의 변화, 화끈거리는 통증, 운동 범위의 감소, 부종, 피부 온도의 비대칭, 쇠약, 지각과민, 땀 분비 변화, 감각 저하, 피부 변화, 떨림, 손발톱의 변화, 근육 긴장 이상 등 다양한 스펙트럼이 존재한다. 이러한 증상은 몸의 여러 부위에서 발병할 수 있는데 대개 손, 발 등의 사지에서 자주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일부 환자에서 증상이 인접 부위로 확산되고 드물지만 반대편으로 확산하는 거울형 확산도 보고되고 있다. 특히 환자들이 많이 호소하고 가장 문제가 되는 증상인 통증은 특징적으로 예리하고(sharp), 깊고(deep), 예민하고 차거나 뜨겁다고 표현한다.

진단 기준

1994년 세계통증연구학회에서는 복합부위통증증후군을 제1형과 제2형으로 구분하여 각각의 진단기준을 제시하였으며 몇 번의 개정과 수정작업을 거쳐 현재는 2010년 발표된 부다페스트 진단기준을 사용하여 진단하고 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언급하면 자발통이나 통각과민 등의 감각 이상, 혈관의 확장, 수축이나 피부 온도, 피부색의 변화를 포함한 혈관운동 이상, 부종이나 발한 이상, 마지막으로 운동 또는 이영양성 변화를 포함한 4개의 큰 범주로 나누어 이중 3범주 이상에서 각각 1개 이상의 증상과 2개 이상의 범주에서 각각 1개 이상의 징후가 있어야 복합부위통증증후군으로 진단한다.

검사 소견

환자의 증상이나 징후들을 제외하고 보다 객관적인 검사를 진행하는데 단순방사선 소견에서 뼈의 광물제거 소견(demineralization)이 보이거나 MRI에서 연부조직의 변화를 관찰할 수도 있다. 좀 더 유용한 검사로 3상 골스캔을 시행하여 지연기(delayed phase)에서 혈류분포의 변화를 확인하거나 피부 온도 차의 변화를 확인하기 위한 체열촬영을 시행할 수 있고 이밖에도 정량적 자율신경검사나 정량적 감각검사 등을 시행해 볼 수 있다.

복합부위통증증후군의 치료

치료의 목표는 가능한 한 빨리 치료를 시작하여 기능적인 원상 회복을 시키는 것으로, 적극적이고 다학제적인 치료가 필요하다. 과학적으로 입증되거나 확증된 치료 방법이 거의 없으므로 중재적 통증치료법뿐만 아니라 복합처방에 의한 약물치료, 물리치료, 지지정신요법을 포함한 심리학적 치료 등이 병행되어야 한다.

복합부위통증증후군의 예후

조기에 발견하여 적극적으로 치료하면 완치가 가능할 수 있지만 증상이나 징후가 서서히 진행되거나 매우 심한 경우, 진단이나 치료가 늦어져서 적극적 치료를 시행하지 못한 경우에는 만성적으로 진행하여 삶의 질을 저하시키고 황폐하게 만들 수 있다. 하지만 다양한 치료들이나 재활을 통해 증상이 해소되고 삶의 질이 향상되었다는 많은 보고가 있으므로 희망을 품고 적극적인 치료와 긍정적인 삶의 자세로 임한다면 복합부위통증증후군을 극복할 수 있으리라 확신한다.

상호 협력하는 의술로
고객의 건강과 삶을 돌봐온
한양대학교의료원의 최고
협력병원을 소개합니다.

환자 중심의 즐거운 변화가 이뤄지는 곳

한양대학교병원 협력병원 린여성병원

산부인과는 고통을 넘어 무한한 가능성을 낳는 공간이다. 여성의 몸과 마음을 진단하고 어루만지는 역할에 이르기까지 치료를 제공하며 환자를 꺼안아야 한다. 2002년부터 15년, 오직 환자에 대한 진정성으로 여성중심적 치료 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을 기울인 린여성병원에 산모들의 발걸음이 끊이지 않는 이유다. 글. 이유평 사진. 이승현



분만은 곧 '아이의 첫 생일날'

기린은 중국 전설에서 영험한 동물로 묘사된다. 성인의 상징이자, 훌륭한 아이를 분만하길 바라는 마음에서 '기린이가 되어라'라는 덕담을 주고받았다. 이 같은 바람을 담아 기린에서 이름을 따온 린여성병원은 산모와 아기 모두 건강하고 원만하게 출산할 수 있는 병원을 지향하며, 환자 중심의 변화를 거듭해가고 있다.

“대체로 산모에게 병원은 불안하고 두려운 공간이에요. 치료 환경에 대한 배려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저희는 환자와의 소통을 넘어 보호자 친화적인 병원을 만들기 위해 리모델링도 계획하고 있어요. 보호자는 존재만으로도 환자에게 큰 안정감을 가져다주기 때문이죠. 더불어 시스템 관리, 노후 장비의 주기적 교체를 통해 안심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가장 진화된 치료용 4D 초음파 기계인 하이푸 도입부터 내시경 전문 전담팀 구성, 산모 친화적인 최신식 분만침대 구비, 조미료를 사용하지 않는 식단 제공 등 환자의 치료와 안정에 있어서 세심한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장시간 분만으로 몸 곳곳 통증을 호소하는 산모들을 위해 상주하는 전문 마사지사의 손길은 산후 후유증에서 벗어나게 만드는 계기가 되어 산모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다.

“분만은 고통이 아니라 기쁨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분만 예정’이라는 말 대신 ‘생일 예정’이라고 부르며 축제의 날이 되도록 격려하고 있어요. 보호자와 함께 자리해 축하하는 ‘맘스베이비사위’, 산모들의 고민을 공유하는 ‘디라인파티’ 등을 통해 출산의 기간이 즐거운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산모와 아기가 행복하게 만날 수 있도록 안전한 중계자가 되는 게 저희의 역할이니까요.”

한양대학교병원과 함께 지키는 환자의 골든타임

산후 출혈, 신생아의 호흡 곤란, 부인압과 같이 응급으로 3차 병원으로 전원하는 순간이 오면 신봉식 원장은 바로 한양대학교병원 산부인과 최중섭 교수에게 SOS를 보낸다. 10분 안에 도착 가능해 환자의 골든타임을 지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분만실과 응급실에서 환자를 위한 최고의 의료진이 대기하고 있기 때문. 신봉식 원장은 한양대학교병원으로 전원했던 응급환자를 떠올리며 의료진에 대한 감사함을 전했다.

“120kg의 고도비만 산모의 분만수술을 진행하는데 척추마취가 원활하지 않아 산소포화도가 급격히 떨어져 응급상황이 발생했

린여성병원

주소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답십리로 266 파워스빌딩
문의 : 02-2244-1212

어요. 산모도 아이도 위험했던 순간, 지체없이 한양대학교병원 응급실로 전원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의사 생활을 하면서 가장 긴장했던 순간이 그때였는데 한양대학교병원 덕분에 아기도 산모도 무사히 퇴원할 수 있었어요. 이 자리를 통해 한양대학교병원 산부인과 최중섭, 호정규, 이원무 교수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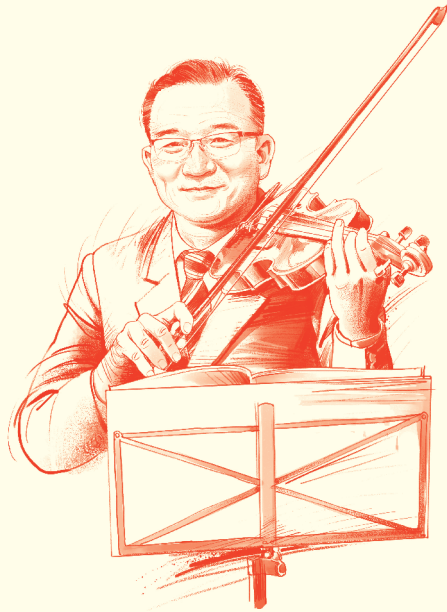
린여성병원은 산부인과뿐만 아니라 내과, 외과, 영상의학과, 마취과, 치과, 에스테틱에 이르기까지 6개 진료과의 전문의료진들이 상주하며 지역주민들의 건강을 책임지고 있다. 환자들이 대학병원을 가기 전, 개인병원이 할 수 있는 최고의 노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다. 더 나아가 전문 세부 분야를 중심으로 멀티 닥터 시스템을 도입, 여성질환에 대한 정확한 진단을 위해 다학제 협진 도입도 계획 중이다. 여성병원이 할 수 있는 이상의 것을 실현하기 위해 오늘도 린여성병원은 즐거운 진화를 거듭하고 있다.

“사람들이 흔히 맛집을 말할 때 ‘안 가본 적은 있어도 한 번만 가본 적은 없는 집’이라고 표현하지요. 우리 병원도 ‘안 가본 적은 있어도 한 번만 가본 적은 없는 병원’이길 바라요. 봉사하고 사랑을 적극적으로 실천하는 병원이 되길, 그래서 거듭 환자들 마음에 스며들길 소망합니다.”

한양대학교병원은 골든타임을 지켜주는 든든한 동료이자 ‘믿을 구석’이라고 표현하는 린여성병원의 신봉식 원장. 린여성병원과의 협력이 지역 주민들의 건강으로, 산모들의 즐거움으로, 세상 빛을 보는 아가의 무궁무진한 가능성이 될 수 있길 바란다. 🍀



신분 격차의 사회 관습에 대한 비판적 러브스토리



Giuseppe Verdi Opera <Luisa Miller>

주세페 베르디 오페라 <루이자 밀러>

베르디는 셰익스피어의 비극들뿐만 아니라 독일의 작가 프리드리히 실러의 비극도 네 편이나 오페라로 만들었다. 실러의 「오를레앙의 처녀」를 토대로 한 〈조반나 다르코〉, 「도둑떼」를 기초로 한 〈돈 카를로〉, 그리고 「간계와 사랑」을 인용한 〈루이자 밀러〉가 그 작품들이다. 권력자의 횡포와 시대의 부조리에 저항했던 실러 작품들의 개혁성향은 사회의 약자 편에 섰던 베르디에게 작곡의 열정을 불러일으켰다. 실러의 「간계와 사랑」(Kabale und Liebe)은 1784년 출판된 비극적 러브스토리다. 귀족의 아들 페르디난트와 시민계급인 약사의 딸 루이제는 서로 사랑하지만 신분의 차이로 반대에 부딪히고, 여주인공을 차치하려는 다른 이의 교활한 방해가 섞여 남녀 주인공 모두 죽게 되는 비극이다. 18세기에는 프랑스, 영국, 독일에서 '시민비극'으로 불린 문학이 유행했는데 부패한 귀족계급이 도덕적이고 선량한 시민계급의 삶에 끼어듦으로써 일어나는 비극을 말한다. 시민비극의 내용은 대개 슬픈 사랑 이야기지만 훗날 정치사회 비판적인 작품들로 발전해나갔다. 「간계와 사랑」의 남녀 주인공은 숭고하고 도덕적이지만 심리적 고통의 극한을 보게 된

다. 파토스(pathos)적인 실러 문학에서 파토스는 두 주인공이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도 도덕적 완전성을 추구할 때 발생한다. 원작에서는 남자 주인공의 아버지가 자신의 세력을 더 확장하려고 아들을 공작의 정부와 결혼시키려고 하지만 이것이 오페라 무대에서는 관객의 분노를 살 수 있다고 생각한 베르디는 공작의 정부를 미망인으로 바꿨다. 더구나 남자 주인공과 미망인은 친척 관계이면서 어린 시절 친구 사이이기도 하다. 루이자 아버지의 직업 역시 원작의 약사에서 퇴역 군인으로 변경했다. 오페라에서는 원작의 강렬한 사회비판이 약화되고 두 주인공의 사랑에 좀 더 초점을 맞췄다. 철저한 악인으로 표현되는 부름은 〈오텔로〉의 이아고와도 비교되는 인물이다. 부름(Wurm)이란 독일어로 '벌레'를 뜻한다. 〈루이자 밀러〉는 오페라 〈리굴레토〉와 〈아이다〉에도 영향을 미쳤는데 모두 부녀관계를 다룬 걸작들이며 신분 차이의 사랑으로 고통받는 딸의 연인을 아버지가 반대한다는 점도 공통점이다. 진실을 발설해서는 안 된다는 맹세를 한 루이자는 연인이 자신을 독살한 사실을 알고 나서야 그 의무에서 풀려나면서 진실을 말할 수 있는 자유를 얻게

된다. 이런 죽음의 미화는 이승에서 이룰 수 없는 사랑을 죽음을 통해 이루려는 낭만주의 예술의 대표적인 특징이다.


제1막 사랑 (밀러의 집) 퇴역군인 밀러의 딸 루이자의 생일파티에서 그녀는 연인 카를로를 기다린다. 카를로는 사실 백작의 아들 로돌포인데 자신의 신분을 감추고 있다. 그와 딸의 사랑을 보며 밀러는 불안감에 휩싸인다. 마을 영주인 발터 백작의 비서 부름은 밀러에게 루이자와의 결혼을 부탁하는데 그가 답을 피하자 딸의 연인이 발터 백작의 아들이라고 폭로한다. 이에 밀러는 깊이 상심한다. 한편 부름은 백작에게 로돌포와 평민 처녀 루이자와의 사랑을 고자질한다. 로돌포가 오자 백작은 자신의 조카이자 공작 미망인인 페데리카와 결혼하라고 말한다. 성에 도착한 페데리카에게 로돌포는 이미 다른 여자를 사랑하고 있다고 고백한다. 그녀는 질투심에 불타 그와 격정적인 이중창을 노래한다.

루이자는 아버지로부터 카를로의 장체를 듣고 놀란다. 신분 차이를 이유로 결혼을 반대한다며 딸을 설득하는데, 로돌포가 나타나 순수하고 진정한 사랑을 호소한다. 그러나 로돌포를 뒤따라온 백작은 아들을 꾸짖고 루이자를 매춘부라며 수감하라고 하자 로돌포는 아버지의 비밀을 폭로하겠다고 협박한다. 밀러는 모욕감을 느끼며 발터에게 격하게 대든다.

제2막 간계 (밀러의 집) 밀러는 백작 모욕죄로 감옥에 갇혀 있다. 부름은 루이자에게 밀러의 사형이 곧 집행된다고 말하며 '로돌포를 사랑한 것이 아니라 그를 유혹하려 했으며 진정으로 사랑하는 남자는 부름이다'라는 내용의 편지를 자기에게 써야만 아버지의 목숨을 구할 수 있다고 한다. 그녀는 심리적 고통 속에서 아버지를 구할 일념으로 거짓편지

를 쓰며 절규한다. 부름은 발터에게 루이자의 편지를 로돌포에게 전했다고 보고하고 페데리카의 의심을 풀기 위해 루이자가 올 것이라고 말한다. 곧 페데리카가 들어오고, 루이자가 나타나 로돌포가 아니라 부름을 사랑한다고 말하자 페데리카는 안도감을 느끼며 크게 기뻐한다. 어떤 이가 나타나 루이자가 부름에게 편지를 전해 달라면서 로돌포에게는 비밀로 해달라기에 수상해서 가져왔다고 로돌포에게 말한다. 편지를 읽은 로돌포는 루이자가 자신을 배신했다고 믿고 슬픔과 분노에 차서 부름에게 결투를 청한다. 발터 백작은 그에게 루이자와의 결혼을 허락한다. 그가 루이자가 배신했다고 말하자 발터는 페데리카와 결혼하여 그녀에게 복수하라고 말한다.

제3막 독약 밀러가 석방된 후 루이자는 아버지 밀러에게 자살하겠다고 말한다. 아버지는 루이자의 마음을 돌리기 위해 간곡하게 애원하고 함께 멀리 떠나기로 한다. 그녀가 기도하고 있을 때 로돌포가 찾아와 독약을 몰래 포도주병에 타놓고는 부름에게 보낸 편지를 정말 당신이 썼느냐고 묻는다.

비밀을 지키기로 맹세한 그녀가 어쩔 수 없이 그렇다고 답하자 그는 포도주를 마시고 루이자에게 건네준다. 격렬한 설전을 벌이다가 로돌포가 둘 다 독약을 마셨다고 털어놓자, 그녀는 모든 것이 부름의 계략에 의한 것이었다고 고백한다. 두 사람이 영원한 사랑을 꿈꾸며 죽어갈 때 밀러가 들어와 경악한다. 마을 사람들이 모여들고, 발터와 부름도 달려오자 그녀는 로돌프의 팔에 안겨 죽음을 맞이하고 로돌포는 최후의 힘을 다해 부름을 칼로 찔러 죽인 뒤 숨을 거둔다. 

들 을 만 한 A l b u m	 로열 코벤트가든 오페라 [DG, 1980]	 메트로폴리탄 오페라 [CBS sony, 1968]	 런던 오페라 코러스와 내셔널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Decca, 1976]
	지휘: 로린 마젤 가치아 리치멜리(밀러), 플라치도 도밍고(로돌포), 레나타 브루손(부름)	지휘: 토마스 쉬퍼스 몽세야 카바예(밀러), 리차드 터커(로돌포), 세릴 밀론즈(부름)	지휘: 페터 마크 몽세야 카바예(밀러), 루치아노 파바로티(로돌포), 세릴 밀론즈(부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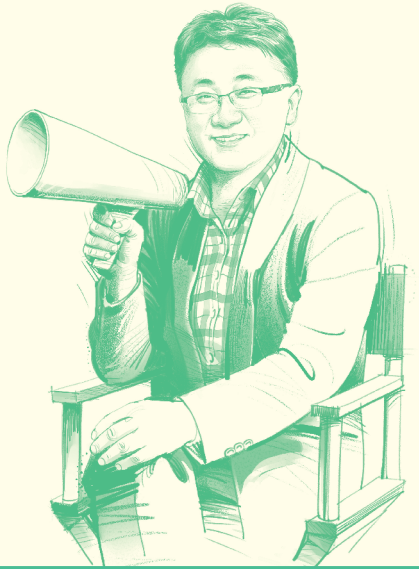


글. **오재원 교수** 한양대학교구리병원 소아청소년과

오재원 교수는 미국 존스홉킨스 앙상블과 스탠포드 팔로 알토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에서 제1바이올린으로 활약한 바 있다.

이러한 고전음악에 대한 사랑을 환자를 비롯한 더 많은 이들과 나누기 위해 〈필하모니아의 사계〉라는 클래식 안내서를 출간하기도 했다.

전형성을 탈피하라, 영화 속 여성 캐릭터



에스피오나지(espionage), 그리고 영화 속 여성혐오(misogyny)에 대하여

“이게 뭐지?” “너무 잔인해.” 2시간 남짓 영화가 끝나고 앞에 앉은 젊은 커플이 자리에서 일어나면서 발은 낫두리다. 제목과 출연배우만 보면 만화적 상상력을 발휘한 스파이 영화일 것으로 생각했던 **〈아토믹 블론드(2017)〉**의 일반적이고 즉각적인 감상평이다. 5년 전 영화 감상 후에 뒷좌석 관객들로부터 들었던 비슷한 느낌의 불평이 겹쳐진다. “이게 뭐야, 속았다.” 이전 영화와 금번 영화의 차이는 배경이 되는 시대, 주연배우의 성별 정도이다. 5년 전 보았던 영화는 **〈팅커 테일러 솔저 스파이(2011)〉**라는 제목의 냉전시대 영국정보부에 침투한 러시아 간첩을 색출하기 위해 속고 속이는 심리전을 다룬 리얼 첩보영화로서 실제로 정보원 출신이었던 존 르카레의 소설을 기반으로 하였다. 1962년 **〈007 살인번호 닥터 노(1962)〉**는 남자들의 환상과 넘치는 액션, 첨단 무기를 잘 버무려 스파이 영화의 본격적인 효시가 되었다. 제임스 본드라는 아이콘의 등장은 비정한 스파이의 실상을 잊게 할 정도의 영웅주의와 낭만주의로 점철된 허구의 세계를 선보이며 향후 새로운 장르를 이끌었다. 그로부터 3년 후 ‘제임스 본드는 잊어라’는 광고문구를 내세운 진짜 간첩 영화인 **〈추운 곳에서 온 스파이(1965)〉**가 발표되었다. 영국의 이중첩자인 리처드 버튼은 동독에 잠입하여 적국의 거물

을 제거하는 임무를 맡게 된다. 누구도 믿을 수 없고 살아남아야 하기에 피도 눈물도 없는 공작과 술수만이 펼쳐지는데, 로맨스나 현란한 액션이 끼어들 여지는 없다. 이러한 첩자의 인간적이고도 실존적인 삶을 다룬 영화를 에스피오나지(espionage) 영화라 부르기 시작했고 이는 판타지 성격이 깃든 007 영화와는 궤를 달리한다.

1989년 베를린 장벽의 붕괴로 냉전시대의 종말이 도래함에 따라 처단해야 할 적은 외부가 아닌 내부에 존재했다. 에스피오나지 영화의 주제는 더욱더 개인주의로 침잠하여 그들은 오로지 자신의 생존을 위해 투쟁하게 되었다. 브라이언 드 팔마가 부활시켜 톰 크루즈를 새로운 007 이단 헌트로 만든 냉전시대의 TV 시리즈 **〈미션 임파서블(1988)〉**이나 영화 **〈본 아이덴티티(2002)〉**를 시작으로 한 일련의 제임스 본 시리즈는 블록버스터 혹은 그 급의 영화임에도 불구하고 이전 에스피오나지의 정신을 묵묵히 계승하고 있다.

〈아토믹 블론드〉는 『콜디스트 시티』라는 그래픽 노블을 각색하여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는 시점의 급박한 상황을 주제로 한 첩보영화이다. 전 세계의 스파이 명단이 모두 기재된 파일이 사라지자 각국에서 스파이를 보내어 먼저 차지하려 하는 중에 영국은 최고의 요원 로레인을 베를린

으로 급파한다. 그녀는 이미 그곳에 오래전 파견된 영국 첩보원 퍼시벌과 접선을 해야 하지만 첩보부 수장 C는 그를 포함해 누구도 믿지 말라고 한다.

영화는 제목에서부터 관객을 헛갈리게 만든다. ‘아토믹’과 ‘블론드’의 결합은 육체파 금발 여자의 이미지(bombshell)를 떠오르게 하지만 영화는 대신에 엄청난 지략과 신체 능력을 기반으로 생존을 피하는 여전사를 등장시키는 반어법을 사용하였다. 또한, 그 흔한 남녀 간의 로맨스 하나 없이 오로지 임무에만 몰두하는 첩보원의 모습이 그려진다. 로레인의 액션은 지금껏 보아온 배우 샤를리즈 테론의 우아함과과는 거리가 먼 피 튀기는 격투기이며 매우 실감나고 과격하게, 잔인하게 묘사된다. 결국 액션 연기도 주인공의 생존에 필수적일 수밖에 없었음을 드러내기 위한 하드코어적인 하부장치(subtext)였음을 알게 된다.


데이비드 보워와 조르조 모로더가 작사, 작곡한 ‘Putting out fire’는 영화 **〈갯 피플(1982)〉**의 엔딩 부분에 흘렸지만 이 영화에서는 로레인의 육조 장면에서 나온다. 표범으로 변신하는 주인공 나스타샤 킨스키는 사람과 표범 사이에서 정체성 혼란을 겪던 중 사랑하는 이를 위해 기꺼이 동물원에 갇히게 된다. 베를린에서의 행적을 추궁 당하기 위해 정보국으로 소환되는 로레인의 상처 난 맨몸은 마치 갯 피플의 이미지와 중첩되어 이후 벌어질 그녀의 정체성, 피아의 구분에 대한 혼란을 상기시킨다.

80년대 팝송을 최대음량으로 틀어내던 영화가 선택한 마지막 곡은 데이비드 보워와 퀸의 컬레버레이션, ‘Under pressure’이다. 주인공의 실체, 끝까지 살아남았던 이유 등을 영원한 아나키스트인 데이비드 보워란 인물을 통해 대신 대답하려 했던 것으로 보인다.

근래 **〈매드맥스: 분노의 도로(2015)〉**에서 외팔이 여전사 퓨리오사 역, **〈헌츠맨: 윈터스 워(2016)〉**에서 절대악 이블 퀸 역, **〈프로메테우스(2012)〉**에서 비정한 메레디스 비커스 역을 맡았던 샤를리즈 테론은 그

녀의 인생작 **〈몬스터(2003)〉**를 만나기 전까지는 슈퍼모델 스타일의 금발미녀의 이미지만을 소모하는 평범한 배우에 지나지 않았다. 그녀는 이 작품에서 미국 최초의 여성 연쇄살인범 에일린으로 완벽하게 빙의하여 오스카 여우주연상을 받으면서 비로소 진정한 배우로 거듭나게 된다. 이야기를 담고 있을 법한 깊은 눈망울은 발레를 통해 체득한 우아한 신체적 카리스마와 고유의 발성과 합쳐져 독특한 아우라를 풍긴다. 최근 제작자와 유엔 홍보대사, 페미니스트의 길을 걷고 있는 그녀의 향후 행보는 어떨지 자못 궁금하다.

최근 **〈청년경찰(2017)〉**과 **〈VP(2017)〉**에서 보였던 여성혐오(misogyny)라는 컨텍스트는 페미니즘에 대해 대중의 무의식에서 작동되고 있는 전방위적 반감을 부주의하게 드러낸 사회적 현상의 한 단면이다. 여자를 헌팅의 대상으로 규정짓거나, 천진스러운 표정으로 납치, 강간, 살인하는 젊은 고위층이 등장하는 영화는 그릇된 사회적 용인의 수준을 드러낼 수 있다는 점에서 위험하다. 영화(우리나라 영화)는 남자배우가 주도해야 하며 조연으로 등장하는 여자배우는 마치 MSG처럼 용인된 한도 내에서 소리되어야 하며, 성역할에 따라 일정 수준을 넘어서는 안 된다는 불문율이 강제되는 한, 한국에서 샤를리즈 테론 같은 배우는 나타날 수 없을 것이다. 그런 점에서 살인자로 분한 **〈악녀(2017)〉**에서의 김옥빈은 존재 자체로 반갑지만 그녀는 천청과 비박으로 튀는 헤모글로빈과 중저음의 남성 목소리에 가려져 드러나지 않는다. 남성 위주의 영화 제작 환경이 빚어낸 소꿉장난에서의 엄마 아빠 바꾸기에 지나지 않는다는 씁쓸한 생각은 나만 드는 것일까?

칸 영화제에서 〈매드맥스〉가 페미니스트 영화인지 질문 받은 샤를리즈 테론의 답변은 그래서 직설적이고 속 시원하다. “사람들은 페미니즘이란 말만 들어도 갑자기 경직되는 면이 있어요. 무슨 우리가 무대 위에서도 올라선 것처럼 말이죠. 조지 밀러 감독은 여성도 남성만큼이나 복잡하고 흥미로운 존재라는 걸 이해하고 보여주었을 뿐이에요.” 



아토믹 블론드(2017)

몬스터(2003)

매드맥스: 분노의 도로(2015)



글. **이형중 교수** 한양대학교병원 신경외과

이형중 교수는 기자를 꿈꾸던 학창시절의 재능과 영화에 대한 사랑을 더해 ‘영화 이야기’를 재미있게 풀어내고 있다. 그의 글이 깊이 있으면서도 쉽게 읽히는 까닭은 해박한 영화 관련 지식을 풀어내는 내공은 물론 대중영화와 예술 영화 등 장르를 가리지 않는 폭넓은 시각 덕분이다.

명작을 남긴 화가의
질환이 작품과 삶에 미친
영향을 살펴보고 오늘날의
치료법에 대해 알아봅니다.

매독에서 시작된 마네 가문의 비밀



글. 이승욱 교수 한양대학교구리병원 비뇨기과

1492년 신대륙 발견과 함께 유럽 대륙에 상륙한 전염병, 매독(syphilis). 샤를 8세부터 니체, 슈만, 보들레르 등 다수의 역사 속 인물들이 이 병으로 고통받았다. 19세기 화가들에게 매독은 강렬한 창작욕과 함께 발작, 망상, 정신착란을 안겨 주었다. 그 한 가운데에 에두아르 마네가 있다.



풀밭 위의 점심식사, 1863

삼각관계 그리고 출생의 비밀

에두아르 마네(Edouard Manet)는 시장 할아버지, 판사 아버지, 외교관의 딸인 어머니 아래 8대째 대대로 부유한 집안의 아들이었다. 법조계에 종사하길 바랐던 아버지의 뜻을 저버리고 마네는 해군 사관 학교 시험을 봤지만 떨어져 17세 때 남아메리카 항로의 선원 견습생이 되었다. 돌아온 그는 1849년 화실에 들어가 6년 이상 그림에 몰두한다. 1860년 마네가 그린 부모님의 초상은 우울한 가족의 단면이 잘 나타나 있다. 주먹을 쥐

고 굳은 표정의 아버지 오귀스트는 매독으로 인한 마비 증세에 시달렸고, 뒤에 서 있는 어머니 역시 어둡고 불안한 표정이다. 초상화를 그릴 당시 아버지 오귀스트는 마네와 동생 외젠의 피아노 선생 수잔 렌호프(Suzanne Leenhoff)와 내연 관계였다. 1852년 '레옹'이라는 사생아를 출산한 렌호프는 초상화를 그릴 당시 마네와도 연인 관계를 유지하며 동거를 했다. 비밀스러운 삼각관계는 아버지 오귀스트가 1862년 매독으로 세상을 떠나면서 끝나는 듯했다.

하지만 아버지 사망 1년 뒤 마네와 렌호프는 결혼을 발표하고 레옹이 아버지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알아버린 마네는 레옹의 대부가 되었다. 대내외적으로는 아들 레옹의 출생 비밀을 숨긴 채 살다가 51세의 이른 나이에 매독에 걸려 사망한 마네. 꽤 긴 시간 매독에 의한 합병증으로 왼쪽 다리가 썩어들어가는 고통을 맞이한 그는 다리 절단 수술을 받고 나서 오래 지나지 않아 사망에 이르렀다. 혈기왕성하던 때에는 〈풀밭 위의 점심식사〉, 〈올랭피아〉처럼 당시의 기준으로 파격적인 그림을 그렸지만, 황혼에는 〈막시밀리안의 처형〉, 〈폴리 베르제르의 술집〉 등의 역작을 남기며 생을 마감했다.

현대 매독의 진행과 치료 방법

매독은 원래 서인도 제도의 지방병이었는데 콜럼버스 일행이 유럽에 전파한 뒤 세계 각지로 퍼지게 되었다. 피부 또는 점막의 작은 상처를 통하여 감염되며, 성적 접촉으로 전파되는 경우가 많다. 1939년 페니실린이 발견되기 전까지 약 500여 년간 수는 성분이 다량 함유된 매독 치료제를 사용했다. 당시 매독 환자들은 매독과 수는 중독이라는 이중고 속에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었다. 현재 매독은 진행 정도에 따라 4기로 구분된다.



폴리 베르제르의 술집, 1881~1882

감염 후 약 6주 뒤에 매독혈청 반응에 양성 반응을 보이는데 신경계 매독은 다른 신경계질환과 비슷한 양상을 보인다. 정신이상, 진행성마비가 생기는데 나선균이 뇌를 광범위하게 파괴하기 때문이다. 척수의 동쪽기둥에 변성이 일어나면 등에 심한 통증이 나타나고 근육공조가 안되며, 척수로 또는 운동실조증 등이 나타난다. 또한 정신분열증으로 발전될 가능성도 있다. 매독균은 혈액 검사로 알 수 있다. 암시야 검사에서 매독균이 발견되거나 매독 혈청 검사에 양성반응이 나오면 진단이 가능하다. VDRL 검사는 위양성의 가능성이 있으므로, 매독의 가능성이 있으면 FTA-ABS나 TPHA 검사로 확진해야 한다. 매독에 걸리지 않으면 검사는 음성을 보인다. 그러나 검사가 음성이라도 감염되어 있지 않다고는 할 수 없다. 왜냐하면 매독에 감염되어도 약 4주 후가 되지 않으면 양성으로 나타나지 않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경우에는 임상적으로 진단하거나 시기를 기다려서 재검사를 해야 한다. 현재의 진단 방법으로는 초기 매독은 발병 후 치료를 하지 않아도 사라지는 경우가 있고 그 후 잠복기가 길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발견하는 것에는 약간의 어려움이 있다. 현재까지도 항생제 중 페니실린이 가장 좋은 매독의 치료제로 사용되고 있다. 페니실린에 알레르기가 있거나, 이 약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테트라사이, 에리스로마이신 등을 사용하게 된다. 이러한 약제의 효능은 1기, 2기, 잠복기, 3기, 임신부 매독, 선천성 매독 모두에 해당한다.④

화가의 부모인 오귀스트 마네 부부, 1860

이미지 출처. 위키피디아

한양대학교의료원 앞으로
도착한 감사의 편지를
전해드립니다.

오랜 치료의 여정에 함께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최정혜 혈액종양내과 교수님께 보내는 편지

4기에 해당하는 악성 임파종 진단을 받았을 때는 온몸에 기운이 없어 그저 막막했다는 조영례 님. 하지만 이내 '이겨낼 수 있다'는 의지를 되찾고 곳곳하게 항암 치료를 받았다. 최정혜 교수의 섬세한 치료 계획과 정확한 설명은 불안을 떨치고 치료에만 집중할 수 있게 한 힘이였다. 정리. 정라희 사진. 김재이



최정혜 교수님께

교수님을 처음 뵈 지도 벌써 3년이 넘어갑니다. 2014년 6월 즈음이었던가요? 저에게 2014년은 삼년감수한 해이기도 하고, 전화위복의 해이기도 합니다. 그해 봄에 허리수술을 받고 계속 속이 안 좋아서 그 원인을 찾고 싶은 마음에 복부 초음파를 받았었죠. 그곳에서 '췌장에 혹이 있다'며 얼른 큰 병원으로 가보라고 이야기를 해주었을 때는 이래저래 정신이 없었습니다. 혹시 췌장암은 아닌지 저도 가족들도 참 많이 걱정했지요. 조직검사를 할 부위를 찾고 결과가 나오기까지의 과정은 참 길었습니다. 처음에는 가족들이 제 병이 무엇인지 바로 이야기를 해주지 않더군요. 알고 보니 악성 임파종이었습니다.

그것도 4기, 위중한 상태였죠. 하지만 최정혜 교수님을 만나면서 저도 회복할 수 있다는 희망을 품게 되었습니다. 서글서글한 인상의 교수님을 보니 어쩐지 마음 한구석이 편안해졌어요. 제가 궁금한 것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설명을 더해주시는 교수님의 모습은 더욱 신뢰가 갔습니다.

3개월간의 항암 치료 기간 동안 교수님의 지혜로운 판단이 없었다면, 저는 더욱 힘들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회복한 모습으로 고향에 가니 동네 사람들이 기뻐하며 새 옷을 사주기도 했습니다. 그야말로 다시 태어난 셈이지요. 이후로 3년간 정기적으로 병원을 찾아 검사하고 있는데, 재발 없이 깨끗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고 하니 그저 감사할 따름입니다. 오랜 치료의 여정에 함께해주신 최정혜 교수님, 앞으로도 잘 부탁드립니다.

조영례 드림



제가 궁금한 것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설명을 더해주시는
교수님의 모습은 더욱
신뢰가 갔습니다.

조영례 님께

소화기내과에서 진단을 받고 혈액내과로 전과된 이후, 처음 뵈었을 때만 해도 조영례 님은 많은 병과 싸우고 계셨지요. 횡격막 기준으로 배와 목, 골수까지 임파종이 퍼져 있어 사실 치료를 하기에 좋은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암은 크게 고형암과 혈액암으로 나뉘는데, 임파종은 혈액암의 일종입니다. 게다가 임파종 내에도 수많은 종류가 있어 진단에 따라 치료 방법도 천차만별로 달라지니, 치료 계획을 더욱 꼼꼼하게 세워야 했습니다.

항암 치료는 암을 극복하기 위해 시행하는 것이지만, 치료를 받는 환자 입장에서는 고통스러운 시간입니다. 백혈구 수치가 떨어지거나 감염에 취약하게 되는 등의 상황에 대비해 항상 긴장 상태에 있어야 하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일흔 중반의 조영례 님은 체력적으로도 아주 힘들었을 겁니다. 그런데도 곳곳하게 모든 치료를 소화하시고 이겨내셨어요. 악성임파종은 치료를 마쳐도 깨끗하게 사라지는 경우가 드물고 재발도 흔한데, 감사하게도 조영례 님은 현재까지 좋은 상태를 유지하고 계십니다.

전남 장성에서 이곳 경기도 구리까지 오는 거리도 상당한데, 그 먼 여정을 주변의 도움 없이 혼자서도 씩씩하게 다니시니 치료 과정에 함께한 제가 더 감사함을 느낍니다. 앞으로도 관리가 중요합니다. 아무래도 면역력이 약한 상태니 독감에 걸리지 않게 올겨울을 앞두고는 보건소에서 독감 예방 접종도 잊지 말고 받으세요. 앞으로도 건강하게 지내실 수 있도록 곁에서 돕겠습니다.

최정혜 드림

전남 장성에서 이곳
경기도 구리까지 주변의
도움 없이 혼자서도
씩씩하게 다니시니 제가
더 감사함을 느낍니다.



한양대학교의료원 의료진이 알기 쉬운 건강이야기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대장암 예방을 위한 ‘1530 캠페인’을 기억하세요!

이강홍 교수 **한양대학교병원 외과**



대장암, 운동하며 예방하자

시대가 변하면 새로운 유행이 생겨나듯, 대장암 예방을 위한 권고 사항도 바뀌고 있다. 10여 년 전에는 술, 담배, 붉은색 고기(소, 돼지 등)가 대장암의 주범이라 꼽혔지만 지금은 비만, 운동 부족이 대장암 발생에 더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한다. 대장암 예방효과를 측정한 다수의 연구들에서 식이가 대장암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하지만, 운동이 갖는 효과는 상당했기 때문이다. 운동하면 혈압이 내려감과 동시에 근력과 유연성이 좋아지고 통증, 피로, 불면 등을 감소시킨다. 골다공증도 완화되어 인간의 전반적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한다. 또한 운동은 대장암을 예방할 뿐만 아니라, 대장암 환자의 수술치료 후 재발과 사망률 감소에 영향을 미쳐 생존율을 증가시키는 등 긍정적 효과를 발휘하고 있다.

2017년 대한대장항문학회에서는 국민의 ‘대장 건강과 운동에 대한 인식’을 알아보기 위해, 전국 성인 남녀(20~80세), 2,128명에게 7월 21일부터 26일 사이에 전화 설문을 시행하였다. 그 결과를 분석하여 ‘1530, 건강 올리고 대장암 내리고’라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캠페인을 진행 중이다. 1530이란 ‘1주일에 5회 30분씩 중간강도의 운동을 하면 대장이 건강해진다’라는 메시지를 담은 숫자다.

대장 건강을 위한 실천은 ‘시작이 반!’

우리 국민이 ‘건강을 위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규칙적인 운동, 건강한 식단, 정기적인 건강검진, 건강보조식품 섭취의 순이었지만, ‘건강을 위해 실천하고 있는 것’은 규칙적인 운동(59.8%), 건강한 식단(54.1%), 건강보조식품 섭취(49.7%), 정기적인 건강검진(41.0%) 순이었다. 건강보조식품에 투자하기보다는 건강검진에 투자하는 적극적인 실천이 필요한 대목임을 엿볼 수 있었다.

세계보건기구(WHO)는 1주일에 150분 이상의 고강도 운동과 75분 이상의 중간강도 운동을 권장하고 있다. 국민들이 가장 많이 하는 ‘천천히 평지 걷기, 가벼운 근력운동, 고정식 자전거 타기’ 등은 저강도 운동이다. 중간강도의 운동은 ‘수중에어로빅, 배드민턴, 테니스, 농구, 빠르게 걷기, 헬스, 중간 속도 자전거 타기’ 등이며, 고강도 운동은 ‘달리기, 장거리 수영, 빠르게 자전거 타기, 스쿼시, 줄넘기’ 등으로 볼 수 있다. 이번 조사에서 세계보건기구의 운동 권장량을 채우는 사람은 5명 중 1명꼴(21.7%)이었다. 운동은 대장암뿐만 아니라 다른 암에서도 암 예방과 치료 후 재발 방지 효과가 있음이 알려져 있다. 때문에 1530 캠페인을 실천하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한 생활습관이 될 것이다. 잊지 말고 실천하자, 1530!

- 본 원고는 한양대학교병원이 지난 9월 14일에 진행한 건강강좌의 내용입니다.

- 한양대학교의료원은 누구나 들을 수 있는 다양한 건강강좌를 꾸준히 진행하고 있습니다.

11+12월 건강강좌 소식은 46쪽 한양캘린더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Point.1

**1주일에 5회 30분씩
중간강도의 운동을 하면
대장이 건강해진다!**

Point.2

**일상 속에서 중간강도의 운동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다.**

HANYANG NEWS

2017년 9월 ~ 2017년 10월

한양대학교병원

제1회 HY인당 재생의학 즐기세로 국제심포지엄



본원은 지난 9월 14일 본교 백남학술관 6층 국제회의실에서 ‘제1회 HY인당 재생의학 즐기세로 국제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최동호 센터장은 “최근 즐기세로와 재생의학 분야에서 많은 성과가 나와 환자들에게 희망을 주고 있다”면서 “이번 심포지엄이 좋은 성과를 보여주고 있는 연구들을 국내외적으로 교류하고 발전시키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치매 토크콘서트 개최



본원은 지난 9월 27일 의과대학 계단강의동에서 치매 토크콘서트를 열었다. 이번 토크콘서트는 대한치매학회와 한국치매가족협회가 공동 주최하는 ‘아름다운 기억 캠페인’의 일환으로 치매에 대한 대국민 인식 증진을 위해 본원 치매 전문 의료진이 총출동했다. 본원 신경과 김승현 교수, 김희진 교수와 한양대학교구리병원 최호진 교수는 배우 박철민과 함께 치매에 대한 이야기와 유익한 정보를 대담 형식으로 쉽고 재미있게 전달했다.

제16회 임상간호연구논문 발표회 열어



본원 간호국은 지난 8월 22일 본관 3층 강당에서 ‘제16회 임상간호연구논문 발표회’를 개최했다. 김경현 의무부총장 겸 의료원장은 인사말에서 “바쁜

임상 간호 현장에서도 간호의 질 향상을 위해 논문 준비에 노력을 아끼지 않은 간호사들에게 감사하다”며 “다양한 임상 간호 논문들이 축적되고, 임상 현장에 반영되어 지속적인 간호의 질 향상이 이뤄지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이번 논문발표회에서는 총 6편의 임상간호연구논문과 2편의 학위논문 및 1편의 근거기반 연구보고서 발표가 진행됐다.

‘병문안객 통제 시스템’ 전면 도입



본원은 모든 병동 출입 통로에 스크린 도어를 설치해 병문안객 출입통제 시스템을 구축하고, 9월부터 전면 가동 중이다. 병문안객 출입통제 시스템은 지난 메르스 사태와 같은 대규모 감염병 상황에 무분별한 병원 방문 면회에 따른 감염확산을 방지하고자 도입되었으며 전 병동 출입구에 스크린 도어가 설치됐다.

입원 환자는 입원 시 발급된 손목밴드형 환자 인식표의 바코드를 이용해 병동 출입이 가능하며 보호자의 경우에는 1인에 한해 본관 1층에서 병동출입증이 발급된다. 그 외에 면회객은 지정된 시간에만 방문할 수 있다. 일반방실은 평일 오후 6시~8시, 주말 및 공휴일 오전 10시~12시, 오후 6시~8시까지 병문안이 가능하다.

서울시발달장애인지원센터와 업무협약 체결



본원은 지난 9월 8일 중구 장교빌딩 13층에서 서울특별시발달장애인지원센터와 발달장애인의 건강증진 및 의료의 질 향상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주요 협약 내용은 ▲의료접근성 향상과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해 상호 이용자 의뢰 ▲학술교류와 협력증진을 위한 인적 교류 ▲최신 치료 및 교육, 복지 서비스에 대한 교육과 자문 및 견학 협조 ▲발달장애인의 건강 및 권익 증진을 위한 연구협력 등이다.

대장암의 달 기념 건강강좌 개최



본원은 지난 9월 14일 본관 3층 강당에서 '대장암의 달'을 맞이하여 대장암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건강강좌를 개최했다. 이날 강좌는 외과 이강홍 교수가 '대장 건강과 운동에 대한 인식조사', 재활의학과 이규훈 교수가 '노인과 운동'을 주제로 대장 건강의 중요성과 고령사회에서의 운동의 중요성 등을 주제로 강의했다.

천사데이 기념 건강체험 행사 열어



본원 간호국은 '천사데이(1004-Day)'를 맞이하여 지난 10월 25일 본관 1층 로비에서 '건강한 삶은 간호사와 함께 - 건강한 목 지키기'라는 슬로건으로 건강체험 행사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입원 환자와 내원 고객들을 대상으로 혈당, 혈압 측정 등 무료 건강검사와 상담을 실시했고, 축하공연 등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장기기증 희망등록 캠페인 개최



본원은 지난 10월 25일 본관 1층 로비에서 장기기증에 대한 인식 개선 및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한 '장기기증 희망등록 캠페인'을 개최했다. 이번 캠페인은 장기기증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과 거부감을 해소하고, 올바른 인식을 확립하여 장기기증을 통해 다른 생명을 살릴 수 있다는 긍정적인 인식을 전파하고자 마련됐다.

성동구 내 '찾아가는 의료봉사'



본원은 성동구 지역주민들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지난 9월 6일 성동노인종합복지관에서 '찾아가는 의료봉사'를 개최했다. 이날 의료봉사는 내과, 가정의학과, 정형외과, 안과, 신경과, 이비인후과 등의 진료과와 방사선사, 간호사, 약사 등의 의료진들이 참여해 90여 명의 성동구 지역주민들에게 건강상담과 무료검진을 실시했다.

한양대학교구리병원

이주·다문화 가정 무료 검진 시행



본원은 지난 9월 19일부터 23일까지 5일 동안 구리시와 남양주시 이주·다문화 아동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무료 건강검진을 실시했다. 김재민 병원장은 "지역사회 의료 취약계층인 이주 아동들이 밝게 자랄 수 있도록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하겠다"고 말했다. 본원은 이주·다문화 아동 청소년들이 피부부세, 언어, 문화 차이로 구별되기 이전에 모두 건강할 권리를 가지는 존엄한 생명이라는 취지로 2010년부터 의료 지원을 실시하고 있다.

한국장기기증원과 양해각서 체결



본원은 한국장기기증원과 지난 10월 11일, 본관 12층 사랑의 실천홀에서 '뇌사 장기기증자 관리업무'에 관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을 통해 양 기관은 장기기증 활성화를 위한 뇌사추정자 발굴과 연락 체계 구축, 신속한 뇌사판정과 효율적인 관리 수행, 기증을 위한 의료 정보 취득의 보장, 진료 행정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할 것을 합의했다. 본원은 올해 장기이식수술을 집중 육성분야로 선정하고, 전문 의료 인프라 구축을 통해 의료 경쟁력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구리시 지역주민을 위한 건강강좌 개최



본원은 구리시 지역주민의 건강한 삶을 위해 구리보건소 지하 1층 강당에서 건강강좌를 진행했다. 지난 9월 1일에는 소화기내과 유교상 교수가 '침묵의 장기, 췌장 알아보기', 10월 13일에는 신경외과 류제일 교수가 '척추 꼭 수술해야 하나요?'를 주제로 강의했다.

구리시 코스모스축제서 의료봉사 활동



본원은 지난 9월 23일 구리한강시민공원에서 열린 '제17회 코스모스축제'에 참여하여 '건강체험 한마당' 부스를 운영해 방문하는 시민들을 대상으로 대규모 의료봉사 활동을 펼쳤다. 이날 행사에는 230여 명의 의료진과 교직원들이 참여해 축제를 찾은 시민들을 대상으로 건강검진 상담, 치매 검사, 체지방 측정, 비만 상담 등 여러 검사와 약사 체험 등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들을 운영했다. 그 외에도 체험 부스 중앙에서는 HY밴드 공연, 오케스트라 합주, 합기도 시범 등 다양한 공연과 경품 추첨 이벤트를 열어 시민들의 뜨거운 호응을 받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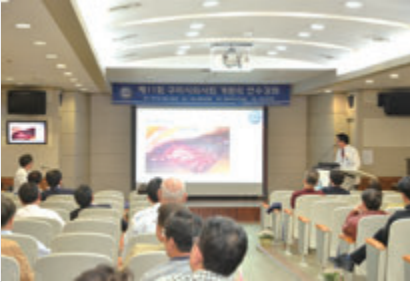
간의 날 기념 건강강좌 개최

본원은 지난 10월 18일 본관 12층 사랑의 실천홀에서 지역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간의 날' 기념 공개강좌를 개최했다. 이날 강좌에서는 원광대산본병원 손원 교수가 '바이러스 간질환 제대로 알



기', 노원을지병원 안상봉 교수가 '지방간질환 제대로 알기', 본원 소화기내과 정재운 교수가 '간경변 제대로 알기'를 주제로 강의했다.

경기 동북부 지역 개원의 연수강좌 개최



본원은 지난 10월 21일 본관 12층 사랑의실천홀에서 경기 동북부 지역 개원의 의사들을 대상으로 '제11회 구리시 의사회 개원의 연수강좌'를 개최했다. 이날 연수강좌는 두 개의 세션으로 나뉘어 구성되었으며 첫 번째 세션은 구리시의사회 김용진 회장이 좌장을 맡고, 성형외과 최승식 교수가 '당뇨발의 진단과 치료', 신경과 이규용 교수가 '손발 저림의 치료'를 주제로 강의했다. 이어진 두 번째 세션은 한동수 부원장이 좌장을 맡고, 신경과 류제일 교수가 '다양한 척추질환의 진단과 해결방법', 영상의학과 김응태 교수가 '혈액투석환자에서의 동정맥루 개통술'을 주제로 강의했다.

한양대학교류마티스병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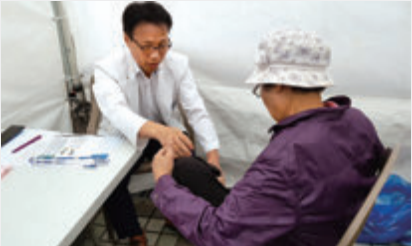
손가락 류마티스관절염 주제로 건강강좌 개최



본원은 지난 10월 13일 본관 3층 대강당에서 '손가락 통증, 류마티스관절염일까?'를 주제로 건강강좌를 개최했다. 이날 건강강좌는 류마티스내과 최찬범 교수가 '류마티스관절염의 치료와 관리', 남승완 교수가 '골관절염의 증상과 치료'를 주제로

강의했다. 이번 건강강좌는 대한류마티스학회가 주최하는 '골드링캠페인'의 일환으로 류마티스질환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해 환자와 가족들이 치료에 대한 희망을 가지고, 적극적인 치료 의지를 독려하기 위해 기획됐다.

2017 중랑구민 건강한마당 참여



본원은 지난 10월 12일 중랑구보건소와 연계하여 중랑구청에서 열린 '2017 중랑구민 건강한마당' 행사에 무료진료와 검진을 실시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관절재활의학과 박시복 교수와 윤여준 전공의가 '발클리닉'을 개설하여 180여 명의 환자들에게 무료진료를 펼쳤다.

인물동정

유성훈 교수, 미국갑상선학회지 표지논문 선정

한양대학교구리병원 내분비 대사내과 유성훈 교수팀의 논문이 미국갑상선학회지인 'Thyroid' 저널의 표지논문으로 선정됐다. 선정된 논문제목은 'G4 면역글로불린 항체가 그레이브스 안병증(갑상선 안병증)에 미치는 임상적 의미'이며 G4 면역글로불린 항체가 그레이브스 안병증의 진단 및 예측에 어느 정도 유용한지를 연구한 내용이다.

김대호 교수, 국제EMDR협회 '포스터 최우수상' 수상

한양대학교구리병원 정신건강 의학과 김대호 교수는 지난 8월 26일 미국 워싱턴주 벨뷰에서 열린 국제EMDR협회 학술대회에서 포스터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이번 논문의 제목은 'Treatment retention and medication compliance in adult outpatients with PTSD with and without EMDR therapy'로, 외상 후 스트레스로 약물치료를 받은 184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EMDR을 동시에 받은 환자들이(40%) 약물치료만 받은 환자에 비해 증상 호전이 클 뿐 아니라, 약물 복용을 잘 하고, 중도 탈락이 적다는 결과를 얻은 것이다.

박예수 교수, '마르퀴즈 후즈 후 평생공로상' 선정

한양대학교구리병원 정형외과 박예수 교수가 세계적으로 권위 있는 인명사전인 '마르퀴즈 후즈 후(Marquis Who's Who)'에서 선정한 2017년 평생공로상 수상자로 선정됐다. 마르퀴즈 후즈 후 평생 공로상(Marquis Who's Who Marquis Lifetime Achievement Award)은 세계 3대 인명사전 중 하나인 마르퀴즈 후즈 후가 각 분야에 탁월한 업적을 이룬 인물을 선정하여 수여하는 상이다.

의료원메가진 (사랑을 실천하는 병원) 편집위원 위촉



한양대학교병원 이항락 대외협력실장, 김상현 호흡기알레르기내과 교수, 최찬범 류마티스내과 교수, 박준성 신장내과 교수, 이원무 산부인과 교수, 이진규 정형외과 교수, 박정하 간호국 파트장, 김대희 대외홍보팀장
한양대학교구리병원 유교상 대외협력 부실장, 고성호 신경과 교수, 강민호 안과 교수

언론 속 한양인

TV와 신문에 등장한 한양인을 소개합니다.
2017년 8월 ~ 2017년 9월



한양대학교병원 박창주 치과 교수 YTN [사이언스투데이] / 8월 3일 / 보양식, 치맥에 비상? 여름철 치아 건강법 **전대원 소화기내과 교수** KBS1R [라디오 주치의] / 8월 8일 / 간염 **오재훈 응급의학과 교수** KBS2TV [아침뉴스타임] / 8월 7일 '질소 과자' 먹다 위에 구멍...안전성 논란 **노성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 MBC [기분 좋은 날] / 8월 16일 / 불면증에 대한 오해와 진실 **김희진 신경과 교수** KBS2TV [생생정보] / 8월 18일 / 정상과 치매 사이, 경도인 지장애, BTN뉴스 / 9월 22일 / 행복한 노년을 위한 봄은 연화대학 개강, 뇌건강, KBS1TV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 9월 25일 / 백세시대 국민병, 치매 알면 두렵지 않다! **이광현 정형외과 교수** KBS1R [라디오 주치의] / 8월 22일 / 손목질환 **김유정 안과 교수** YTN [사이언스투데이] / 8월 24일 / 일명 '눈꺼풀 여드름' 눈다래개...질은 눈 화장 때문에? **태경 이비인후과 교수** KBS2TV [생생정보] / 8월 29일 / 갑상선암 언제 수술 해야 하나? **박병배 혈액종양내과 교수** KBS1TV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 9월 8일 / 노인은 암세포가 늦게

자란다? **한양대학교구리병원 오재원 소아청소년과 교수** KBSIR [라디오 주치의]/ 8월 4~6일, 11~13일, 18~20일, 25~27일/ 무직 테라피 **유교상 소화기내과 교수** MBN [특집 다큐]/ 8월 5일/ 당신의 위 안녕하십니까? **장성호 재철의학과 교수** KTV/ 8월 24일/ 휴가 후유증 극복 **정재운 소화기내과 교수** MBC [생방송 오늘 아침]/ 8월 30일/ E형 간염 **이창범 내분비대사내과 교수** KBS1TV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9월 19일/ 중년의 위기! 갯논기를 잡아라 **정진혁 이비인후과 교수** KBS1TV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9월 26일/ 코질환 **고성호 신경과 교수** EBS [과학다큐 비온드]/ 9월 28일/ 생명연장의 과학, 텔로미어 **최준호 정신건강의학과 교수** SBS CNBC/ 9월 30일/ 명절증후군 극복하기 **한양대학교류마티스병원 박시목 관절재활의학과 교수** KBS1TV [생로병사의 비밀]/ 8월 23일/ 맨발이면 천천이다! **유대현 류마티스내과 교수** MBC [생방송 오늘 아침]/ 9월 22일/ 몇 발짝 떼기도 힘든 관절염 환자들이 경주 여행!



한양대학교병원 노성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 국민일보/ 8월 1일/ 청소년 정신건강 위협 스마트폰 ‘집에서 부모들부터 들여다보는 시간 줄어’, 조선일보/ 8월 2일/ 절제없는 스마트폰 사용, 인지장애 위험 높아, 중앙일보/ 8월 12일/ 생각을 잃어버린 뇌와 스마트 기기 **김희진 신경과 교수** 매일경제신문/ 8월 11일/ 음주로 손상된 뇌신경세포 복구 안되지만, 매일경제신문/ 8월 12일/ 뇌 기능은 선천적이지만 퇴화 속도는 늦출 수 있어, 매일경제신문/ 9월 2일/ 요즘 대세라는 ‘혼밥·혼술, 건강엔 ‘독’ 되기 쉬워 **고용 신경외과 교수** 한국일보/ 8월 15일/ 약으로 고쳐지지 않는 난치성 두통, 수술로 해방 **최중섭 산부인과 교수** 한국일보/ 8월 16일/ ‘먹는 낙태약’ 들어오
는 여성들 **엄정민 산부인과 교수** 글로벌이코노믹/ 8월 28일/ 과학적 근거 없다 환불 안 된다는 깨끗한나라 릴리안, ‘어디’와는 다르다?, 글로벌이코노믹/ 8월 28일/ 전문의 “생리주기 변동, 생리대 원인 아닐 수도” 깨끗한나라 릴리안 부작용 논란 **안동현 정신건강의학과 교수** 동아일보/ 8월 30일/ 초
등생 제자 꺾어… 여교사의 빛나간 욕망, 중앙일보/ 9월 18일/ [건강한 가족] 보통 수험생엔겐 효과 없고 부작용만 나타나 **조정기 비뇨기과 교수** 중앙일보/ 8월 30일/ [건강한 당신] 아빠 되고 싶으세요? 살부터 빼세요 **이광현 정형외과 교수** 한겨레/ 8월 31일/ 서럽지만…손목 아파도 집안일 놓을 수 있나요?, 한겨레/ 8월 31일/ 휴식과 스트레칭, 손목에도 꼭 필요해요~ **박훈기 가정의학과 교수** 한국일보/ 9월 12일/ ‘1만보’ 집착 말고, 하루 30분

이상 걸려라 **임한웅 안과 교수** 서울신문/ 9월 19일/ [임한웅의 의공학 이야기]
 기] 의료도 로봇 시대 **이원두 산부인과 교수** 조선일보/ 9월 20일/ 일회용
 생리대, 2~3시간마다 바꿔라 **박현경 소아청소년과 교수** 조선일보/ 9월 20
 일/ 채소 잘 먹는 아이로 키우려면, 모유 수유 전 채소 드세요 **김상헌 호흡**
기알레르기내과 교수 조선일보/ 9월 27일/ COPD, 단백질 잘 먹어야 증상
 호전 **한양대학교구리병원 최준호 정신건강의학과 교수** 머니투데이/ 8월 7
 일/ [수능100일간강3] “사당오락? 옛날!...충분히 자야 건강 **최승석 성형외**
과 교수 조선일보/ 8월 16일/ 年 2000명, 당뇨병으로 발 절단... 작은 상처
 가 괴사로 진행, 중앙일보/ 9월 25일/ 추석 황금연휴, 당뇨병 환자 ‘발 건강’
 신경 써야 **이승환 이비인후과 교수** 서울신문/ 8월 28일/ [메디컬 인사이트]
 ‘디지털 난청’의 습격 **이장현 성형외과 교수** 한국일보/ 8월 28일/ 크고 예쁜
 눈 얻으려다 눈 망친다 **고성호 신경과 교수** 한국경제신문/ 8월 29일/ ‘알츠
 하임머’ 치료제 국내 임상2상 시작 **김창렬 소아청소년과 교수** 조선일보/
 8월 29일/ [더 나은 미래] 조금 빨리 만난 ‘이른둥이’ 정부 지원 사각지대 없
 어지길 **최호진 신경과 교수** 국민일보/ 9월 15일/ 대한치매학회·국립현대
 미술관, ‘일상예찬, 소풍’ 행사 실시 **심재환 마취통증의학과 교수** 중앙일보/
 9월 18일/ 뒷목 뻐뻐, 얼굴 저릿... 석 달 이상 뇌두면 뇌가 빨리 늙어오
한양대학교류마티스병원 최찬범 류마티스내과 교수 글로벌이코노믹/ 9
 월 21일/ [주목, 이 연구] 신장 이식 받은 셀레나 고메즈, 루푸스병이 원인?

한양대학교의료원 발전기금

한양대학교의료원 발전기금 모금 캠페인

‘함께 실천하는 한양사랑’

Together & Tomorrow

모금 캠페인이란?

한양대학교병원과 한양대학교구리병원이 힘찬 미래를 향해 재도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매월 일정 금액의 기부금을 급여공제, 무통장입금 또는 자동이체
(CMS)를 통해 사용 용도를 지정하여 기부할 수 있는 모금 캠페인입니다.

사용 용도

- 한양대학교의료원 발전기금
- 한양대학교병원 암센터 건립기금
- 한양대학교구리병원 신관 신축기금
- 한양대학교류마티스병원 연구중심병원 발전기금

※ 발전기금은 법에 의거하여 시설, 연구, 교육, 학술 활동 등에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참여 대상

한양대학교의료원을 아껴주시는 동문, 환자 및 보호자, 학생 및 학부모, 재단 가족 및 교직원, 일반인 등 누구나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 발전기금을 기부해주시는 분들에게는 세금공제와 함께 기부금에 따른 예우 혜택이 있습니다.

약정 방법

- 온라인 약정하기 : 한양대학교의료원 홈페이지(www.hyumc.com) ⇨ 발전기금 icon 클릭 ⇨ 함께 실천하는 한양사랑 약정서 다운로드 ⇨ 약정서 작성(서명) ⇨ 팩스(02-2296-3806) 또는 이메일 송부(hmcfund@hyumc.com)

※ 문의 : 한양대학교의료원 대외협력실 대외홍보팀
Tel. 02-2290-9535~6

기부자 명예의 전당

이 명예로운 자리에 귀하의 소중한 이름을 새기겠습니다

(1천만 원 이상)



한국특수요육원

(1천만 원 이상)



설인준

한양대학교의료원 발전기금

2017년 8월 ~ 2017년 9월 기부자 명단

성명	직장명(소속)	성명	직장명(소속)	성명	직장명(소속)	성명	직장명(소속)	성명	직장명(소속)	성명	직장명(소속)
1,000만 원 미만~ 500만 원 이상	김영서 한양대학교구리병원	국은영 간호국	남승혁 흉부외과	변순현 의무기록팀	윤원구 윤정형외과	장지희 건강관리팀	500만 원 미만~ 100만 원 이상	김충현 한양대학교구리병원	박재일 제일내과의원	송병주 하나안과의원	안경성 한양학원 재단법인
		김경화 본관11층	남영자 마취후회복관리실	서승표 정형외과	은창수 소화기내과	장태원 직업환경의학과					
		김금옥 중앙공급실	남정현 정신건강의학과	서우영 정형외과	이경섭 이경섭정신과의원	전미선 간호국					
100만 원 미만~ 50만 원 이상	이동규 이동규내과	김남기 재무팀	노선균 흉부외과	서정심	이경식 감염관리팀	전석분 중앙공급실	100만 원 미만~ 50만 원 이상	김대호 한양대학교구리병원	김준영 한양대학교병원	조희운 한양대학교구리병원	강대진 우리들산부인과의원
		김대희 대외홍보팀	노정환 병리과	서정원 영상의학과	이경희 본관6층	전선희 화목실					
		김도윤 정형외과	류기영 산부인과	성민철 안과	이광현 정형외과	전용철 소화기내과					
50만 원 미만~ 10만 원 이상	강대진 우리들산부인과의원	김동섭 KD밝은안과	류제일 신경외과	성외순 부속실	이규용 신경과	전우재 마취통증의학과	50만 원 미만~ 10만 원 이상	강일규 강일규이비인후과	강정환 강이비인후과의원	강창남 정형외과	강홍구 한양정형외과의원
		김문성 김문성이비인후과의원	명동안과의원	성정순 간호국	이두연 정형외과	정경희 본관9층					
		김미혜 내과계중환자실	문지용 호흡기내과	손주현 소화기내과	이민자 신경과	정규성 정형외과					
10만 원 미만~ 5만 원 이상	김대호 한양대학교구리병원	김민규 외과	문진화 소아청소년과	손한숙 약제팀	이상훈 이상훈이비인후과의원	정미선 원무팀	10만 원 미만~ 5만 원 이상	강일규 강일규이비인후과	강정환 강이비인후과의원	강창남 정형외과	강홍구 한양정형외과의원
		김봉유 원무팀	문홍상 비뇨기과	송중훈 정형외과	이성필 정형외과	정수경 간호국					
		김승현 신경과	민경환 병리과	신대현 상쾌한이비인후과	이승욱 비뇨기과	정우성 새움병원					
5만 원 미만~ 1만 원 이상	강대진 우리들산부인과의원	김양욱 신생아중환자실	박기철 정형외과	신동한 원무팀	이승환 이비인후과	정재윤 소화기내과	5만 원 미만~ 1만 원 이상	강일규 강일규이비인후과	강정환 강이비인후과의원	강창남 정형외과	강홍구 한양정형외과의원
		김영보 홍보마케팅팀	박동우 영상의학과	신순교 응급의료센터	이양섭 물류팀	정재호 이비인후과					
		김영호 정형외과	박성욱 원무팀	신용운 안과	이영석 정형외과	정재홍 정형외과					
1만 원 미만~ 5천 원 이상	강대진 우리들산부인과의원	김옥중 물류팀	박시복 재활의학과	신우종 마취통증의학과	이유경 영상의학과	정진혁 이비인후과	1만 원 미만~ 5천 원 이상	강일규 강일규이비인후과	강정환 강이비인후과의원	강창남 정형외과	강홍구 한양정형외과의원
		김용수 영상의학과	박예수 정형외과	신정철 성남이안과	이은희 본관11층	정진환 신경외과					
		김순길 한양대학교구리병원	박용미 본관6층	신정호 심장내과	이장현 성형외과	정희숙 Q팀					
5천 원 미만~ 1천 원 이상	강대진 우리들산부인과의원	김재민 한양대학교구리병원	박용천 정신건강의학과	신창식 신창식 이비인후과	이정일 정형외과	조기섭 진단검사의학과	5천 원 미만~ 1천 원 이상	강일규 강일규이비인후과	강정환 강이비인후과의원	강창남 정형외과	강홍구 한양정형외과의원
		윤영선 한양대학교병원	박원희 치과	신태양 정형외과	이제인 약제팀	조상윤 마취통증의학과					
		조희운 한양대학교구리병원	김운영 치과	심경아 본관11층	이종 교육연구팀	조아라 영양팀					
1천 원 미만~ 500원 이상	강대진 우리들산부인과의원	김이석 정형외과	박주원 의무기록팀	심재항 통증의학과	이종숙 감염관리팀	조영아 소통의원	1천 원 미만~ 500원 이상	강일규 강일규이비인후과	강정환 강이비인후과의원	강창남 정형외과	강홍구 한양정형외과의원
		김지혜 소아청소년과	박지호 간호국	안치원 응급의학과	이종희 본관5층	조영완 운영지원국					
		김정수 피부과	박찬혁 소화기내과	여광호 진단검사의학과	이주학 신장내과	조영진 본관7층					
500원 이상	강대진 우리들산부인과의원	김주형 본이비인후과의원	박창구 시설팀	염종훈 마취통증의학과	이주한 영상의학과	조재민 조은이비인후과의원	500원 이상	강일규 강일규이비인후과	강정환 강이비인후과의원	강창남 정형외과	강홍구 한양정형외과의원
		김준현 압구정안과의원	박태선 호흡기내과	오미경 마취통증의학과	이진규 정형외과	지용배 이비인후과					
		김지영 핵의학과	박혜경 코코이비인후과	오영하 병리과	이창범 내분비내과	채영림 재무팀					
500원 이상	강대진 우리들산부인과의원	김지은 감염내과	박환철 심장내과	오재원 소아청소년과	이창우 정형외과	최경진 최경진정형외과	500원 이상	강일규 강일규이비인후과	강정환 강이비인후과의원	강창남 정형외과	강홍구 한양정형외과의원
		김창렬 소아청소년과	박원겸 외과	오정환 희명병원	이창훈 정형외과	최도전 본관8층					
		김창선 응급의학과	박희정 진단검사의학과	원영웅 혈액종양내과	이혜순 류마티스내과	최미경 간호국					
500원 이상	강대진 우리들산부인과의원	김태완 홍익안과	박희철 서울정형외과	유교상 소화기내과	이화준 Q팀	최민영 외과	500원 이상	강일규 강일규이비인후과	강정환 강이비인후과의원	강창남 정형외과	강홍구 한양정형외과의원
		김태형 호흡기내과	반은주 제3중환자실	유미경 임상연구지원팀	임동수 임신경정신과의원	최승석 성형외과					
		김한준 외과	방소영 류마티스내과	유창성 진단검사의학과	임연예 원목실	최완식 새로운정형외과의원					
500원 이상	강대진 우리들산부인과의원	김현욱 의료정보팀	백근만 류마형정지원팀	윤영희 재활의학과	장성호 재활의학과	최정혜 혈액종양내과	500원 이상	강일규 강일규이비인후과	강정환 강이비인후과의원	강창남 정형외과	강홍구 한양정형외과의원
		김희숙 약제팀	백운철 병리과	윤여필 물류팀	장재선 간호국	최준석 탐이비인후과의원					

성명	직장명(소속)	성명	직장명(소속)	성명	직장명(소속)	성명	직장명(소속)	성명	직장명(소속)
최준호	정신건강의학과	권혁천	고객지원팀	김성애	본관17층	김창복	홍보마케팅팀	박경희	중앙공급실
최충혁	정형외과	권현숙	본관5층	김성철	병리과	김철한	원무팀	박근배	보험심사팀
최혁중	응급의학과	권혜영	인공신장실	김성훈	영상의학과	김초롬	본관5층	박영호	환자이송반
최호진	신경과	김경수	본관6층	김세정	본관11층	김춘애	영양팀	박미숙	영양팀
최홍용	비뇨기과	김경숙	항암조제실	김소란	본관10층	김태근	병리과	박미순	원무팀
하루미	간호국	김경실	본관5층	김소연	인공신장실	김태호	재활의학과	박미옥	교육연구팀
한동수	소화기내과	김경우	진단검사의학과	김수연	보험심사팀	김택순	조혈모세포이식센터	박상혁	영양팀
한명훈	신경외과	김경중	한양평신건강의학과의원	김숙미	영상의학과	김하연	응급의료센터	박선아	진단검사의학과
한상웅	신장내과	김광영	고객지원팀	김순식	노동조합	김현일	외과	박선영	원무팀
한승훈	재활의학과	김규식	비뇨기과	김승희	인공신장실	김현주	고객지원팀	박선영	제3중환자실
한주희	한주희정형외과	김금례	인공신장실	김아름	본관5층	김현진	재활의학과	박선희	마취후회복관리실
홍성숙	내시경실	김기라	인사총무팀	김애경	내과중환자실	김현창	물류팀	박성찬	진단검사의학과
홍의호	핵의학과	김기석	내시경실	김애경	본관20층	김현희	2층내과	박소은	영양팀
황규태	정형외과	김나영	본관18층	김양선	인공신장실	김형근	진단검사의학과	박수미	신생아중환자실
황성우	경영지원실	김대건	영상의학과	김연정	재무팀	김형석	약제팀	박수정	본관9층
황의순	진료협력팀	김도와	내시경실	김연주	병동서무	김형주	수술실	박순구	안과
황인자	간호국	김동관	진단검사의학과	김영미	이비인후과	김혜림	감염관리팀	박연희	수술실
10만 원 미만		김란	본관5층	김영선	본관5층	김혜원	본관11층	박용범	기획팀
		김령	영양팀	김영신	치과	김황룡	진료부	박유정	감염관리팀
강다운	본관9층	김령희	재무팀	김영연	심장센터	김효준	물류팀	박은수	본관10층
강문주	본관11층	김영환	영양팀	김영일	임상연구지원팀	김휘원	신경외과	박은영	내시경실
강민아	진단검사의학과	김미라	마취후회복관리실	김영자	진단검사의학과	김희나	주사실	박은영	인공신장실
강석범	핵의학과	김미라	성형외과	김영진	신경외과	나소정	수술실	박은형	고객지원팀
강성훈	진단검사의학과	김미라	영상의학과	김영훈	물류팀	나인철	재활의학과	박용범	비상계획계
강신창	핵의학과	김미성	인공신장실	김육원	영상의학과	남순영	본관5층	박점현	본관11층
강영의	본관6층	김미화	고객지원팀	김은미	신생아중환자실	노광규	인사총무팀	박주은	분만실
강윤성	의무기록팀	김미희	본관7층	김은실	소아청소년과	노옥경	제3중환자실	박지경	영양팀
강은미	본관10층	김민아	본관10층	김은주	응급의료센터	노옥석	동관7층	박지애	QI팀
강지민	마취후회복관리실	김민정	수술실	김은희	수술실	노창완	영상의학과	박지혜	응급의료센터
강지원	기획팀	김민정	수술실	김인호	약제팀	류종백	시설팀	박진옥	보험심사팀
강혜영	영상의학과	김민정	인공신장실	김자윤	해민정신건강의학과	명영숙	원무팀	박진희	인공신장실
강혜숙	영양팀	김민희	2층내과	김재희	영상의학과	모지은	소화기내과	박진희	인사총무팀
고희경	2층내과	김백수	동관7층	김정달	진단검사의학과	문미영	주사실	박춘아	수술실
공경숙	신생아중환자실	김병숙	원무팀	김정민	본관10층	문상희	제3중환자실	박현정	피부과
공지현	심장센터	김보미	신경외과	김정숙	고객지원팀	문영민	영상의학과	박현혜	본관8층
곽동원	영상의학과	김삼미	본관10층	김정안	본관7층	문재봉	시설팀	박현화	마취후회복관리실
권난희	영양팀	김상훈	약제팀	김정연	외과	문정희	본관9층	박혜정	건강검진센터
권미화	호흡기내과	김상희	본관11층	김정희	영양팀	문한솔	외과	방민주	제3중환자실
권연희	영양팀	김서현	정신건강의학과	김주희	응급의료센터	문희애	본관6층	방성주	대외홍보팀
권오균	인사총무팀	김선영	2층내과	김준식	진단검사의학과	박경림	보험심사팀	배순석	수술실
권유진	응급의료센터	김선영	재무팀	김종식	홍부외과	박경미	비뇨기과	배은희	보험심사팀
권은진	이비인후과	김선주	인공신장실	김창금	영양팀	박경숙	간호국	백형정	약제팀

성명	직장명(소속)	성명	직장명(소속)	성명	직장명(소속)	성명	직장명(소속)	성명	직장명(소속)
안은진	2층내과	유선정	이비인후과	이상미	제3중환자실	이현주	원목실	조인옥	진단검사의학과
안이슬	본관10층	유숙	병리과	이새롬	본관11층	이현중	영상의학과	조현교	진단검사의학과
안정미	수술실	유영미	본관7층	이서윤	본관9층	이혜정	수술실	조현일	시설팀
안정은	본관11층	유정안	중앙공급실	이선영	본관6층	이호문	영상의학과	조환영	수술실
안정현	이비인후과	유정자	본관7층	이선화	본관9층	이호용	영상의학과	지미경	보험심사팀
안혜옥	본관20층	유주량	본관5층	이선희	원무팀	임경순	신경외과	지은아	산부인과
양길녀	본관7층	유지학	인사총무팀	이성모	물류팀	임다현	본관10층	지혜정	의료정보팀
양명화	간호국	유현영	물류팀	이성미	이식센터	임연희	진단검사의학과	진수희	내시경실
양미영	영양팀	유현주	건강검진센터	이소연	응급의료센터	임은실	응급의료센터	진춘희	영양팀
양수용	중앙공급실	윤경주	응급의료센터	이수연	고객지원팀	임은자	이비인후과	천경희	의료정보팀
양은주	낮병동	윤미영	본관8층	이수진	수술실	임인자	수술실	천다혜	본관9층
양정자	원무팀	윤선미	영양팀	이숙	고객지원팀	임정연	고객지원팀	천영복	물류팀
양현	간호국	윤선애	본관7층	이숙희	마취후회복관리실	임주아	정형외과	천은미	소아청소년과
양호선	약제팀	윤선희	영양팀	이순자	본관5층	임지영	영양팀	천은선	외과
엄기숙	영양팀	윤아름	본관10층	이승호	영상의학과	임화영	비뇨기과	최다을	신생아실
엄혜정	수술실	윤인숙	본관10층	이연주	정형외과	장선정	신생아중환자실	최문정	본관5층
여미진	본관10층	윤정희	약제팀	이영미	신생아중환자실	장윤주	약제팀	최미옥	제3중환자실
여은주	본관6층	윤지선	본관6층	이영주	2층내과	장정아	육아지도실	최민희	마취후회복관리실
오금복	정형외과	윤향순	진단검사의학과	이예린	제3중환자실	전경신	신생아실	최선미	인공신장실
오기향	비뇨기과	윤현숙	마취후회복관리실	이윤미	심장센터	전효선	영상의학과	최선희	진단검사의학과
오미혜	정신건강의학과	윤현순	고객지원팀	이윤진	응급의료센터	정경은	본관5층	최성은	교육연구팀
오연이	영양팀	윤희정	인공신장실	이은경	인사총무팀	정기영	영상의학과	최세연	원무팀
오영숙	고객지원팀	윤희재	내시경실	이은명	마취후회복관리실	정대천	원무팀	최소담	영상의학과
오유선	본관9층	이강연	인사총무팀	이은애	심장센터	정선주	본관7층	최순애	인공신장실
오재훈	마취통증의학과	이경은	영상의학과	이은주	기획팀	정선희	인공신장실	최승희	본관10층
오정남	영양팀	이경철	기획팀	이은형	본관6층	정수정	본관5층	최신자	진단검사의학과
오정숙	재활의학과	이경희	인공신장실	이정식	보험심사팀	정유정	본관17층	최영선	인공신장실
오지현	주사실	이관석	원무팀	이정애	병리과	정은영	수술실	최윤희	신생아중환자실
오진영	2층내과	이규택	신경과	이정은	고객지원팀	정일웅	의료정보팀	최은영	본관8층
오홍석		이금란	인공신장실	이정인	당뇨센터	정임중	응급의료센터	최재범	원무팀
오화경	수술실	이나리	본관10층	이정화	소아청소년과	정재순	마취통증의학과	최정연	대외홍보팀
옥상열	홍보마케팅팀	이나영	수술실	이정화	신경과	정정미	본관10층	최정훈	2층내과
우순희	수술실	이두중	핵의학과	이정화	이비인후과	정지현	응급의료센터	최종석	영상의학과
우정미	고객지원팀	이명숙	병리과	이정희	본관8층	정현정	진단검사의학과	최종은	보험심사팀
원혜정	부속실	이명주	약제팀	이종열	치과	정혜영	내과중환자실	최진실	본관5층
원홍석	인사총무팀	이미경	영양팀	이주영	비상계획계	정훈	의료정보팀	최창순	동관7층
위영현	약제팀	이미라	신경외과	이주현	본관6층	조경숙	인공신장실	최현구	본관8층
유고은	본관10층	이미자	본관11층	이주현	중앙공급실	조광희	본관9층	최현주	진단검사의학과
유미화	물류팀	이미정	본관10층	이지현	심장센터	조구성	영상의학과	최혜용	고객지원팀
유병호	제3중환자실	이미정	인공신장실	이진주	응급의료센터	조규선	영상의학과	최희영	QI팀
유선길	건강검진센터	이민지	본관5층	이하랑	마취후회복관리실	조명희	심장센터	표은주	진단검사의학과
		이민진	건강관리팀	이현주	본관7층	조은영	영상의학과	하경애	마취후회복관리실

기부금 명단은 가나다 순입니다.

Hanyang Calendar

11 November

03	금	한양대학교구리병원	건강강좌	오후 3시	구리보건소 지하 1층	폐암과 수술적 치료 - 홍부외과 남승혁 교수
		한양대학교구리병원	사랑의 음악회	오후 12시 30분	본관 1층	위드 앙상블 - 정애화, 플루트 앙상블
06	월	한양대학교구리병원	사랑의 음악회	오후 2시	본관 1층	7층 안정병동 음악회 - 김준수, 조현철
10	금	한양대학교구리병원	사랑의 음악회	오후 12시 30분	본관 1층	피아노 연주 - 전재홍
17	금	한양대학교구리병원	사랑의 음악회	오후 12시 30분	본관 1층	중창 - 에벤에셀
24	금	한양대학교구리병원	사랑의 음악회	오후 12시 30분	본관 1층	싱어송라이터, 피아노 연주 - 이루진, 조건국
25	토	한양대학교병원	건강강좌	오전 10시	본관 3층 강당	루게릭병의 일상생활 관리 - 추현식 간호사
29	수	한양대학교병원	사랑의 음악회	오후 12시 30분	본관 1층 로비	올남 음악회

12 December

01	금	한양대학교구리병원	건강강좌	오후 3시	구리보건소 지하 1층	당뇨 합병증 예방하기 - 내분비내사내과 유성훈 교수
		한양대학교구리병원	사랑의 음악회	오후 12시 30분	본관 1층	합창 - 예다미
04	월	한양대학교구리병원	사랑의 음악회	오후 2시	본관 1층	위드 앙상블 - 정애화, 플루트 앙상블
08	금	한양대학교구리병원	사랑의 음악회	오후 12시 30분	본관 1층	합창 - 이종열
12	화	한양대학교병원	사랑의 음악회	오후 12시 30분	본관 1층 로비	에벤에셀 음악회
15	금	한양대학교구리병원	사랑의 음악회	오후 12시 30분	본관 1층	안명진 연주팀 - 손현희 외 7인
16	토	한양대학교병원	건강강좌	오전 10시	본관 3층 강당	루게릭병 환우 송년회 - 신경과 김승현 교수
22	금	한양대학교구리병원	사랑의 음악회	오후 12시 30분	본관 1층	한양밴드보컬리스트 - 김선영
29	금	한양대학교구리병원	사랑의 음악회	오후 12시 30분	본관 1층	싱어송라이터, 피아노 연주 - 이루진, 조건국

‘사랑을 행동으로 실천하는 사회복지기금 모금 캠페인’

Sharing is happiness

생명 사랑 나눔의 순간, 이웃과 함께하는 기쁨!

한양대학교의료원 이웃사랑 사회복지기금

매월 일정 금액을 급여공제 · 무통장입금 또는 자동이체(CMS)를 통해 기부할 수 있습니다.

- ▶ **사용용도** : 취약계층 환우의 의료비 지원
- ▶ **참여대상** : 누구나 참여 가능
- ▶ **참여방법** : 온라인(www.hyumc.com) → 사회복지기금 클릭 → 약정서 다운로드(작성 후) → 팩스 또는 이메일 송부

구 분	한양대학교병원	한양대학교구리병원
후원계좌	100-031-815870 / 신한은행 (예금주:한양대학교병원)	100-031-811976 / 신한은행 (예금주:한양대학교구리병원)
연락처	02) 2290-9440	031) 560-2986
팩스	02) 2290-9439	031) 553-5118
이메일	ss9708@hyumc.com	kimyim@hyumc.com

*사회복지기금은 세금공제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한양대학교병원 외래 진료 시간표

■ 대표전화 / 전화예약 : 02 - 2290 - 8114

■ 응급실 : 02 - 2290 - 8283

■ 진료의뢰센터 : 02 - 2290 - 9717

http://seoul.hyumc.com

진료과	의사명	오전	오후	특수전문분야
소화기내과 2290-8303	최호순	수, 금, 토(1주)	월	간질환, 담낭, 담도, 췌장
	윤병철	월, 목	수	식도, 위, 장질환, 용종, 각종치료내시경
	이오영	월, 수, 토(3주)	화, 목	식도, 위, 장질환, 용종, 각종치료내시경
	전대원	월-목	수, 금	간질환
	이향락	금, 토(2주)	월, 화	식도, 위, 장질환, 용종, 조기암, 내시경절제술, 각종치료내시경
	이강녕	화, 토(4주)	목, 금	식도, 위, 장질환, 용종, 조기암, 내시경절제술, 각종치료내시경
	김은진	화, 목	월, 수, 금	일반 소화기내과질환
심장내과 2290-8700	김재하	월, 수, 금	화, 목, 토	일반 소화기내과질환
	김경수	화, 목, 토(2주)	화, 금	허혈성심장질환, 심혈관중재술, 심장출기세포치료, 협심증, 고혈압
	신진호	월, 수, 금, 토(1,4주)	수	고혈압, 심부전, 심혈관중재시술
	임영효	수, 금, 토(3주)	월, 수	허혈성심장질환(협심증, 심근경색), 고혈압, 심부전, 말초동맥질환
	박진규	월, 화, 목, 토(1주)	목	부정맥, 실신, 급사, 심장전기생리검사 및 전국도자절제술, 심박동기
	장기설			일반 심장내과질환
	김근호	월, 수(1주), 금, 토(3,4주)	화, 목	전해질장애, 고혈압, 심부전, 부종, 복막투석
신장내과 2290-8300	이창화	화, 수, 금, 토(1,2주)	월, 목	사구체신염, 신장이식, 혈액투석, 복막투석
	박준성	월, 목, 토(3주)	화, 수, 금	일반 신장내과질환
내분비대사 내과 2290-8300	안유현	월-목, 토(2주)	수	당뇨병, 갑상선, 골다공증, 비만, 뇌하수체
	최용환	월-수, 금, 토(1주)		당뇨병, 갑상선, 골다공증, 비만
	김동선	월, 수, 목, 토(4주)	월, 화	당뇨병, 뇌하수체, 갑상선
	박정환	화, 토(3주)	수, 목, 금	일반 내분비대사질환
호흡기 알레르기내과 2290-8302	윤호주	월, 수, 토(4주)	수, 목	천식, 만성폐쇄성폐질환, 폐암, 폐결핵
	손장원	월, 화, 목, 금, 토(1주)		폐결핵, 폐암, 폐렴
	김상현	화, 금, 토(2주)	월, 화	천식, 알레르기, 면역성폐질환
	박동원	수, 토(3주)	월, 화, 목	호흡기알레르기질환
	구건우		수, 금	일반 호흡기질환
	민지희	목		
중환자실	내과계	구건우	월-금	중환자실 전담 전문의
	외과계	김교상	월-금	중환자실 전담 전문의
혈액종양내과 2290-8300	이영열	월, 수	목, 금	만성백혈병, 골수증식질환, 림프종, 골수증, 기타혈액질환
	박병배	화, 목	월, 금	림프종, 다발성 골수증, 두경부종양, 뇌종양, 비노생식기계종양, 육종
	엄지은	금	월, 화, 수	급성백혈병, 골수이형성증, 재생불량성빈혈, 조혈모세포이식
감염내과	배현주	목	월, 목	감염질환, 불명열, HIV클리닉, 여행지클리닉
소아청소년과 2290-8380 제대혈클리닉▲	설인준	화, 목, 토(3주)	월	소아신경 및 근육질환, 소아간질
	오성희	목, 금, 토(4주)	월, 화	소아감염질환
	김남수	월, 수, 금, 토(2,3주)	월, 수, 목	소아심장질환
	이영호	월(귀), 토(1주)	화, 목	조혈모세포이식, 소아혈액, 소아암
	김용주	월, 수, 토(1주)	목	소아소화기영양
	박현경	화		육아상담실, 신생아 및 미숙아질환
	이현주		금	육아상담실, 신생아 및 미숙아질환
	김자혜	목	화	소아내분비
	김종덕	월	수, 금	호흡기알레르기
육아지도실 2290-8871	박현경	월		육아상담실, 신생아 및 미숙아질환
	이현주	수		육아상담실, 신생아 및 미숙아질환
신생아 중환자실	박현경	수, 목, 금	월-금	신생아중환자실 전담 전문의
	이현주	월, 화, 목, 금	월-목	신생아중환자실 전담 전문의

진료과	의사명	오전	오후	특수전문분야
신경과 2290-8367/ 8368 세포치료센터 &클리닉▲ 2290-9377 서관 7층	김주한	월, 수	월, 수	간질, 실신, 수면장애, 하지불안증후군
	김승현	월, 금(루게릭)▲, 목	월(루게릭)▲	말초신경 및 근육질환, 치매 및 루게릭병
	김희태	화, 수, 목▲	화, 목 (파킨슨)▲	이상운동질환(파킨슨), 손떨림, 뇌졸중
	김현영	수▲, 금, 토(2주)	화, 수▲	뇌졸중, 두통, 어지럼증, 경동맥협착
	김희진	화▲, 금, 토(3주)	화▲, 금	치매 및 인지기능장애, 뇌졸중, 뇌수막염
	김영서	월, 화, 토(1주)	월, 목	뇌졸중, 두통, 어지럼증, 경동맥협착
	오기욱	월▲, 금▲, 토(4주)	월▲, 수	말초신경계질환, 근육병질환, 두통
	박진석	화, 토(2,4주)	목, 금	말초신경 및 근육질환, 두통, 일반신경과질환
	조원호	수, 토(1, 3주)	금	일반 신경과질환
정신건강의학과 2290-8419	안동현	수, 토(4주)	월, 수, 목	소아정신의학, 발달장애, 과잉행동증후군
	김석현	화, 목, 토(2주)	화, 수, 금	정신약물학,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노성원	월, 금, 토(1,3주)	월, 목	중독장애, 노인정신장애, 우울증, 조현병
	민아란	월, 수	금	소아정신의학
	김강률	목	화, 목	소아정신의학
피부과 2290-8434	노영석	월, 화, 목, 토(2주)	월	아토피 피부염, 여드름, 탈모, 건선
	고주연	화, 금, 토(4주)	수, 목	
	김정은	월, 수, 토(1,3주)	화, 수, 금	피부미용, 레이저, 색소질환, 건선, 백반증, 대상포진, 무좀 및 진균성질환, 피부암
외과 2290-8444	권성준	수, 금		위, 십이지장질환, 외과종양학
	권오정	월	수	이식, 혈관질환
	이경근	화, 금	목	간, 담도, 췌장질환, 복강경수술
	최동호	수, 목, 토(1주)	월	간, 간이식, 담도, 췌장질환, 복강경수술, 로봇수술
	이강홍	화, 목, 토(2주)	화	대장항문질환, 복강경수술, 로봇수술
	정민성	목, 토(3주)	월, 목 (맘모통)	유방질환, 유방암, 갑상선종양, 갑상선암, 내분비외과, 갑상선 로봇내시경수술
	하태경	화, 토(4주)	금	복강경/로봇위암수술, 고도비만대사수술, 복강경탈장수술
	안병규		해 외 연 수	
소아외과	하태경	월		복강경/소아외과수술, 선천성질환, 탈장수술
	김영학	화, 금	화, 금	관상동맥질환, 심장판막질환, 심장이식
흉부외과 2290-8461	정원상	월, 화, 목	화, 목	폐 및 식도외과, 종격동, 흉강경수술, 폐이식
	김 혁	수	월, 수	심장판막질환, 선천성 심장질환, 흉강경수술, 대동맥수술
정형외과 2290-8473	이광현	월, 수, 금		수부외과클리닉(미세수술), 주관절학
	최충혁	월, 수	수	슬관절클리닉(관절경화, 인공슬관절치환술), 스포츠의학
	성일훈	화, 목, 토(1주)	화	족부클리닉, 당뇨발, 변형교정, 스포츠의학
	강창남	월	월, 수	척추클리닉, 골다공증
	김이석		해 외 연 수	
	이봉근	목	화, 금	견관절, 골절, 외상(스포츠손상), 근골격계 다발성 손상
	황규태	화, 목		고관절, 골절, 외상(스포츠손상), 근골격계 다발성 손상
	이진규	화, 토	목	슬관절클리닉(관절경화, 인공슬관절치환술), 스포츠의학
	조영훈	금		견관절클리닉, 관절경, 외상학, 미세수술, 스포츠의학
	공동의		월	슬관절 클리닉(관절경화, 인공슬관절치환술), 스포츠의학
	이상현		화	족부클리닉, 당뇨발
	김동윤	수		척추 클리닉, 골다공증

한양대학교구리병원 외래 진료 시간표

* 2017년 11월 기준이며, 시간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일반진료는 각 외래로 문의 바랍니다.

진료과	의사명	오전	오후	특수전문분야
정형외과	김영호	월, 수, 금	수	인공관절 치환술, 골절(고관절 및 슬관절)
	박예수	수, 금	월	퇴행성 및 골다공성 척추질환, 척추기형
	박기철	화, 목, 토(1주)	금	사지골절, 골반골절, 사지변형교정술
	이정일	월, 토(2주)	화, 금	수부 및 손목관절, 미세재건외과, 말초신경마비
	안재혁	목, 토(3주)	화, 수	슬관절(관절경, 인공관절), 스포츠 손상
산부인과	송중훈	화, 토(4주)	월, 목	견관절, 주관절, 외상
	류기영	월, 목, 토(1,3주)	화	조기진통 및 조산, 고위험임신, 초음파, 태아 이상 의 진단 및 치료, 일반부인과(복강경수술)
	정연석	수, 금, 토(2,4주)	월, 수	단일공법 복강경수술(난소축, 자궁축), 부인암, 산모, 고위험산모
성형외과	최승석	월, 금	수	말초신경 및 수부재건, 유방성형, 미용성형
	이장현	화, 목, 토(2,4주)	화, 목	안면기형 및 재건, 피부부, 미세재건수술, 침샘종양, 미용성형
	장정우	수, 토(1,3주)	월, 금	안면외상, 육창재건, 피부종괴, 미용성형
외과	남영수	월, 수	목	대장직장질환, 유방암, 갑상선질환
	이홍기	월, 수, 금		혈관(대동맥, 경동맥, 당뇨발), 이식, 간담체질환
	박원겸	목	화, 금	간담체질환, 복강경수술
	김한준	화, 금, 토(1주)	목	간담체질환, 복강경수술, 탈장
	김민규	화, 금, 토(2주)	수	상부 위장관질환, 복강경 위절제술, 탈장
안과	최민영	목, 토(3주)	월, 화	유방, 갑상선질환
	김현일	토(4주)	수, 금	상부 위장관질환, 복강경 위절제술, 탈장
	조희운	화, 목	목	망막 및 유리체질환, 당뇨망막병증, 황반변성, 포도막염
	성민철	수, 금	월, 수	녹내장, 백내장
	강민호	월, 토(4주)	화, 금	외안부질환, 굴절, 백내장
피부과	임한웅	토(3주)	화	안성형, 사시, 소아안과
	신용운	월, 금, 토(2주)	수	망막 및 유리체질환, 당뇨망막병증, 황반변성, 포도막염
	이민지	목, 토(4주)	월, 금	사시, 소아안과, 성형안과
	유희준	월, 화, 금	화, 목	무좀 및 조갑백선, 피부알레르기질환
	김정수	수, 목, 토	월, 수	피부미용, 피부외과, 소아피부질환
이비인후과	서현민	화	수, 목, 금	피부미용, 일반피부과질환
	이승환	월, 수	목	만성중이염, 난청, 이명, 어지럼증, 인공와우이식
	정진혁	화, 금, 토(4주)	수	부비동염, 비종격질환, 코막힘, 알레르기비염, 코골이, 코성형
	지용배	해 외 연 수		
	정재호	금, 토(2,3주)	월, 수, 금	어지럼증, 난청, 이명, 중이염
비뇨기과	변하영	월, 수, 목		이명, 어지럼증, 소아 및 일반이비인후과질환
	박우성	목, 토(1주)	화, 목, 금	비부비동염, 비종격 만곡증, 알레르기 비염, 일반 이비인후과질환
	송창면	화		두경부종양, 갑상선종양, 경부종물, 음성장애
	최홍용	화, 목	목	요로결석, 전립선질환, 요실금, 비뇨기종양
	문홍상	수, 토(4주)	월, 금	전립선비대증, 전립선질환, 배뇨장애, 요실금
재활의학과	이승욱	월, 금, 토(2주)	화	복강경수술, 비뇨기종양, 남성과학
	김규식	월, 토(1,3주)	수	요로결석, 소아비뇨기질환
	장성호	월, 수, ▲, 금	월, 수	근골격계재활, 스포츠의학, 노인의학
	한승훈	화, 목	화, 목, 금	소아재활클리닉, 근골격계재활 (요통, 오십견, 관절염), 스포츠 손상, 뇌신경 재활
	박원희	월-목, 토(2주)	수	보철, 임플란트, 틀니, 미백, 턱관절질환
치과	김윤영	화, 금, 토(1,3주)	월, 화, 목, 금	보철, 임플란트, 틀니, 미백
	심재향	월, 수, 금	월, 금	요통, 관절증, 만성통증, 암성통증, 통증질환
해의학과	김지영	화	화	중앙해의학
직업환경학과	장태원	화	화	직업성질환, 업무관련성평가, 업무적합성평가

http://guri.hyumc.com

■ 대표전화 : 1644 – 9118

진료과	의사명	오전	오후	특수전문분야
소화기내과	손주현	화	월, 목	간질환(간염,간경변증,간암)
	한동수	월, 목	화	소장, 대장질환(염증성 장질환, 대장암, 기능성 장질환)
	전용철	월, 금	수	소화기, 위장관질환
	은창수	수, 금	월	소화기, 위장관질환
	유교상	화, 수, 토(2,4주)	목	담도, 췌장질환, 소화기질환
심장내과	박찬혁	목, 토(1,3주)	수, 금	소화기, 위장관질환, 식도암, 위암
	정재운	수, 목, 토(2,4주)	화, 금	간질환(간염, 간경변증, 간암), 소화기질환
	정해룡		화	소화기, 위장관질환
	김순길	월, 화, 목, 금	목	고혈압, 허혈성심질환, 심부전
	박환철	수, 목, 토(3주)	화	고혈압, 부정맥질환
신장내과	신정훈	월	화, 수, 목	고혈압, 허혈성심질환, 심부전
	이용구	수	월, 수, 금	고혈압, 허혈성심질환
	한상웅	월, 목, 금	화, 수	만성콩팥병, 당뇨병콩팥병, 사구체신염, 고혈압, 투석요법
	이주학	화, 수, 토(1,2,3주)	월, 목	특발성 부종, 만성콩팥병, 고혈압, 전해질이상질환
	이창범	화-금, 토(2주)	월, 목	당뇨병, 갑상선질환, 비만증
내분비대사내과	유성훈	월, 금, 토(3,4주)	화, 금	당뇨병, 갑상선질환, 골다공증, 일반내분비질환
	이혜순	월, 수, ▲, 토(3주)	화, ▲, 목	류마티스관절염, 퇴행성관절염, 통풍, 루푸스, 베체트병, 만성통증
	방소영	화, ▲, 목, 금, 토(4주)	수, ▲	류마티스관절염, 퇴행성관절염, 통풍, 루푸스, 베체트병, 만성통증
류마티스내과	권혁희	화, 토(1, 3주)	월, 금	류마티스관절염, 퇴행성관절염, 루푸스, 통풍, 베체트병, 만성통증
	김태형	월, 수, 목, 토(2,4주)	화	만성폐쇄성폐질환, 천식, 결핵, 폐암, 중환자관리
호흡기내과	문지용	해 외 연 수		
	박태선	화, 금, 토(1,3주)	월, 목	만성기침, 천식, 만성폐쇄성질환, 결핵, 폐암
	박연경		수, 금	만성폐쇄성폐질환, 천식, 결핵
혈액종양내과	최정혜	화, 목, 토(2,4주)	월, 수, 금	혈액암, 빈혈 및 혈액질환, 고형암
	원영웅	월, 수, 금, 토(1주)	화, 목	혈액암, 빈혈 및 혈액질환, 고형암
감염내과	김지은	목, 토(2,4주)	월, 화, 수	감염질환, 불명열, HIV(인간면역결핍 바이러스), 해외여행자, 예방접종
	김창열	화, 수, 금	화	신생아학, 영아신경발달 및 질환
소아청소년과	오재원	수, 금, 토(4주)	월, 수	소아호흡기, 알레르기 및 면역질환
	문진화	월, 화, 목, 토(1주)	화, 목	소아신경질환
	이영호	월		소아혈액종양
	김남수		금	소아심장질환
	김지혜	수, 토(3주)	월, 수, 목	소아내분비질환, 성장, 의학유전질환
신경과	최영진	월, 목, 토(2주)	월, 수, 금	소아호흡기질환
	강하나	목	금	신생아학
	이영주	화, 금	화, 목, 금	뇌종양, 치매, 파킨슨병, 어지러움증, 하지불안증후군
	이규용	월, 수, 금	월, 수	뇌종양, 두통, 말초신경병증,하지불안증후군, 손저림
	고성호	월, 수, 목	월, 수	뇌종양, 신경퇴행성질환(치매, 파킨슨병)
정신건강 의학과	최호진	화, 목(보건의료) 토(1-4주)	월, 목	치매, 뇌종양, 두통
	박용천	월, 화(보건소치매), 목	월, 목	문화정신의학, 정신분석, 정신치료
	김대호	화, 목, 토(1주)	화, 수(클리닉), 금	외상후스트레스장애, 불안장애
	최준호	월, 수, 금, 토(2,4주)	수	조현병, 조기정신병, 조울증, 우울증, 신경영양학
	김충현	월, 금, 토(3주)	화, 수	뇌종양, 뇌종양, 척추 및 말초신경질환
신경외과	김재민	수, 목, 토(1주)	월	뇌혈관질환, 두개저뇌수종양 및 뇌종양, 뇌종양
	정진환	월, 토(2주)	화, 목	두부외상, 뇌혈관질환, 뇌혈관내수술
	류제일	화, 수	금	척추질환(최소침습척추수술), 척추종양, 두부외상
	한영훈	목, 금, 토(4주)	월	뇌종양, 뇌경위기능, 두부외상
	나만균		목	뇌종양, 두부외상, 일반신경외과
흉부외과	원유덕		수, 금	뇌혈관질환, 신경계 손상
	노선균	수, 금	화, 금	심장질환(관상동맥, 심장판막질환, 심장종양), 대동맥 및 혈관질환(동맥맥류, 말초동맥질환, 하지정맥류 등),흉부외상, 기흉
	남승혁	월	월, 수, 목	흉강경수술, 폐암, 식도암, 양성폐질환, 기흉, 다한증, 종격동질환, 흉부외상, 흉곽기형

* 2017년 11월 기준이며, 시간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일반진료는 각 외래로 문의 바랍니다.

진료과	의사명	오전	오후	특수전문분야
해의학과	최윤영		수	갑상선 동위원소 치료
	이수진	토(1,3주)	월	일반진료
	이영수	목, 금	월, 화, 목	임플란트, 완전/부분틀니, 심미보철
	황경균	월, 화, 목	월, 화, 목	턱얼굴성형수술(기형), 임플란트, 턱관절질환, 침샘질환(타액선), 코골이장치
	박창주	화, 목, 금	화, 금	턱얼굴 성형수술, 임플란트, 턱관절질환, 치과진장법
치과	한지영	월-금	화, 금	치주질환, 치주성형, 치주조직재생, 임플란트
	김주형	월, 화, 목	월, 화, 목	심미교정, 설측교정, 금속교정, 수술교정
	심광섭	화, 금	수	턱얼굴외상, 임플란트, 턱관절질환
	이은혜	월, 수, 금	월, 수, 금	보존치료, 심미수복치료, 근관치료, 치아미백
	박훈기	월	목	
맞춤형 비만치료센터	황환식	수	금	
	박계영		월, 수	
	하태경		화	
가정의학과	박훈기	수, 금, 토(2주)	월, 목	스포츠의학
	황환식	월, 화, 목, 토(4주)	금	건강증진의학, 노인의학
	박계영		화, 수	건강증진의학
직업환경의학과	송재철	월-금, 토(3주, 격일)	월, 수	환경 및 산업의학, 직업성 천식
	이수진	화, 금, 토(3주, 격일)		근골격계질환, 새집증후군

한양대학교류마티스병원

동관 1층 : 02-2290-9216, 9217, 9226

류마티스내과 2290-9216	유대현	월, 화, 목	화, 수	류마티스관절염, 골관절염, 성인형스틸병, 근염
	배상철	월, 수, 목, 토(2주)	월, 목	류마티스관절염, 골관절염, 루푸스
	전재범	화, 수, 금, 토(4주)	목, 금	류마티스관절염, 골관절염, 경피증, 통풍
	김태환	화, 목, 토(2주)	월, 화, 목	강직성척추염, 퇴행성 관절염
	성윤경	월, 화, 수, 금, 토(3주)	수	류마티스관절염, 골관절염, 루푸스, 강직성 척추염, 골다공증, 쇼그렌병
	최찬범	월, 수, 금, 토(4주)	수, 금	류마티스관절염, 골관절염, 루푸스, 강직성척추염, 섬유근통, 쇼그렌병, 베체트병, 건선관절염, 혈관염
	조수경	월, 수-금, 토(1,3주)	월	류마티스관절염, 골관절염, 루푸스,강직성척추염, 베체트병
	남승환	화-목, 토(4주)	월, 수, 목	류마티스관절염, 골관절염, 루푸스, 강직성척추염, 섬유근통, 쇼그렌병
	안가영	목, 토(3주)	금	일반 류마티스내과질환
	김민정	월, 토(1주)	수	일반 류마티스내과질환
관절재활의학과 2290-9226	김형영	금, 토(2주)	화	일반 류마티스내과질환
	박시복	수, 금, 토(2주)	월, 수, 금	족부재활, 류마티스재활, 근골격재활
	이규훈	월, 화, 목, 토(2주)	화, 목	족부재활, 관절재활, 스포츠의학
통증의학과 2290-9216	심재철	월, 수, 목, 금		신경병증성통증, 척추통증
	최충혁		월	슬관절클리닉(관절경, 인공슬관절치환술), 류마티스슬관절염
골·관절외과 2290-9216	이봉근		목	전 주관절, 회전근개질환, 류마티스질환, 관절경, 건관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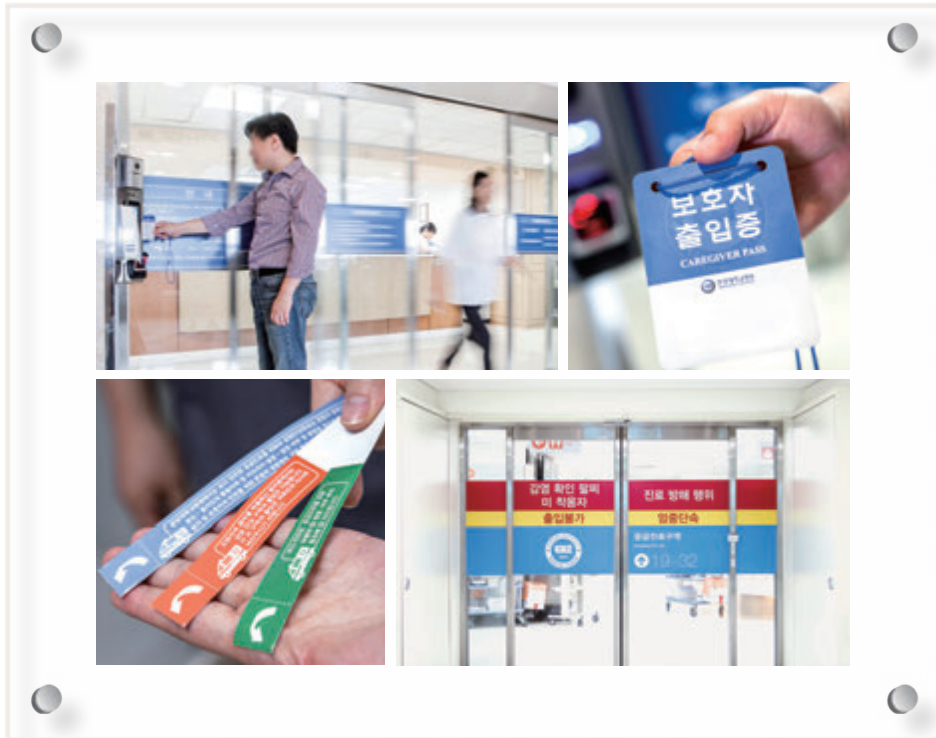
한양대학교국제병원

서관 3층 : 02-2290-9550, 9551, 9552

종합검진 2290-9550	윤호주	화	월, 화, 목	폐암, 폐결핵, 폐렴, 간질성폐결핵
	박훈기		화, 수	스포츠의학
	황환식		월, 목	건강증진의학, 노인의학
	박계영	월-토(2,4주)	목, 금	가정의학
	김정현	월, 화, 목, 금		Global healthcare, 심장내과
여행자 클리닉	배현주	수		감염질환, 불명열, HIV클리닉, 여행자 클리닉
	김연환	화, 금	목	미세재건수술(사지재건), 안면골절 및 외상, 미용성형(코), 일반성형, 피부종양, 피부반흔교정, 육창

진료과	의사명	오전	오후	특수전문분야
신경외과 2290-8491	고 용	월, 수	월	뇌혈관질환, 미세극소침습뇌수술, 내시경뇌하수체 수술, 뇌신경질환
	김영수	화	목	파킨슨병 및 이상운동질환, 삼차신경통 및 통증성질환, 뇌종양
	백광흠	월, 수	금	디스크, 요통, 척추질환, 내시경디스크수술, 척추종양
	이형중	목, 토(1주)	화	뇌혈관질환, 혈관내수술, 두부손상, 뇌졸중(중풍), 두통, 퇴행성 신경손상
	전형준	금, 토(2주)	수	요추디스크, 척추관협착증, 팔저림증, 신경손상, 통증성질환, 척추종양
	최규선	금, 토(4주)	수	뇌혈관질환, 혈관내수술, 두부손상, 뇌졸중(중풍), 두통, 퇴행성 신경손상
	권세민	목, 토(3주)		일반 신경외과질환
성형외과 2290-8560	박영기		화	일반 신경외과질환
	안희창	수, 금	월	유방재건 및 성형, 선천성 얼굴기형, 레이노드병, 손재건
	김연환	화, 목, 토(2,4주)	화	하지재건(미세수술), 당뇨발, 안면외상, 미용성형(코), 육창
	윤승기	토(1주)	수, 금	일반 성형외과질환
산부인과 2290-8400	임수연	월, 토(3주)	목	일반 성형외과질환
	최중섭	월, 수	수, 금	일반 산부인과, 난소암, 자궁암, 로봇수술, 자궁경 및 복강경수술
	호정규	월, 화, 목, 토(3주)	화	일반 산부인과, 고위험임신, 조산, 자궁경 및 복강경수술
	이원무	목, 금, 토(2,4주)	화	난소암, 자궁암, 일반 산부인과, 로봇수술, 자궁경 및 복강경수술
	배재만	화, 토(1,3주)	월, 목	난소암, 자궁암, 일반산부인과,로봇수술,자궁경 및 복강경
안과 2290-8570	엄정민	금, 토(2,4주)	월, 수	일반 산부인과, 난소암, 자궁암, 로봇수술, 자궁경 및 복강경수술
	이은현	월, 수	목, 금	일반 산부인과질환
	엄기방	월, 수	금	녹내장, 백내장
	이병로	화, 목	목	망막, 유리체, 백내장, 포도막
	임한웅	금, 토(4주)	월, 수	소아안과, 사시, 안성형, 신경안과
이비인후과 2290-8580	안성준	금, 토(1,3주)	화, 수	망막, 유리체, 백내장, 포도막, 미숙아 망막증
	김유정	월, 토(2주)	화, 목	외안부, 굴절교정, 백내장
	박철원	화, 금, 토(3주)	화	만성중이염, 난청, 어지러움증, 이명, 안면신경마비
	김경래	목, 토(2주)	월, 목	부비동염, 알레르기성비염, 부비동내시경
	태 경	월, 수	수	두경부종양, 갑상선종양, 로보갑상선수술, 경부종물, 음성장애
비뇨기과 2290-8593	조석현	월, 화, 금, 토(1주)	수, 금	부비동염, 알레르기비염, 부비동내시경, 코골이, 코성형, 악안면외상, 수면무호흡
	송창면	화-수(구리), 목, 토(4주)	월, 목, 화, 수(구리)	후두음성, 인후두역류, 소아이비인후과, PITA편도수술, 갑상선암, 두경부암
	임중현		화	일반 이비인후과,부비동염,알레르기비염, 난청,어지럼증,이명
	이동원	수	금	일반 이비인후과, 편도염, 인후두염, 편도절제술, 알레르기 비염, 축농증
	박해영	수, 금	월, 수	신장이식 및 남성과학, 신결석, 전립선질환, 비뇨기질환
비뇨기과 2290-8593	김용태	화, 목	화, 수	배뇨장애, 요실금, 전립선질환, 비뇨기종양, 신장질환, 신결석
	박성열	월, 수, 목	월	전립선암, 신장암, 방광암, 복강경 및 로봇수술, 전립선질환, 신결석, 소아비뇨기질환
	조정기	화, 금	목	전립선암, 신장암, 방광암, 복강경 및 로봇수술, 요로결석, 전립선질환
	윤영은	월	화, 금	결석, 혈뇨, 로봇수술, 신장암, 신장이식, 최소침습수술, 항암치료
	정재훈	토(1,2,3,4주)	목, 금	일반 비뇨기계질환
재활의학과 2290-9350	김미정	월, 수, 금, 토(1주)	월, 수	소아재활, 근골격계재활,노인재활, 뇌신경재활
방사선종양학과 2290-8614	전하정	월, 수	화, 수, 목	방사선종양학
	박혜진	월, 화, 목, 금	월, 화	방사선종양학

병문안객 통제 시스템을 통해
**감염으로부터 안심할 수 있는
병원을 만들겠습니다**



한양대학교병원은 보건복지부의 '의료기관 입원환자 병문안 기준 권고'에 따라 9월부터 무분별한 병원 방문 면회로 인한 감염 확산을 방지하고자 병문안객 출입통제 시스템을 도입했습니다. 환자와 방문객 모두를 위해 방문객 절차를 규정하고, 병문안객, 상시출입자의 문화개선을 위한 시스템입니다. 일반병실은 평일 오후 6시~8시, 주말 및 공휴일은 오전 10시~12시, 오후 6시~8시까지 병문안이 가능합니다. 보이지 않는 감염 요소로부터의 보호와 쾌적한 병동 및 진료 환경을 위한 개선에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염으로부터 안전한 병원 만들기에 앞장서는 한양대학교병원이 되겠습니다.

